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6번(II)

영원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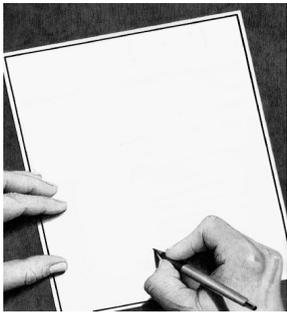
마지막 날 사건들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 품성 형성과 절제(IV)

2020년 기도력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새 해를 맞이하며...

편집부



“또 한 해가 기록의 짐을 지고 영원 속으로 거의 흘러갔다. 지나간 해를 돌아보고, 만일 우리가 자원하여 충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새 해에 이르러서는 충성된 기록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목사,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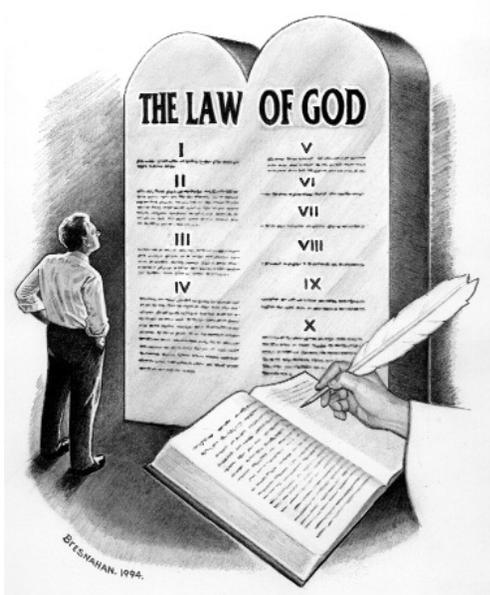
“또 한 해의 생애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새 해가 우리 앞에 열려지고 있다. 이 해의 기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들은 이 백지 위에 각각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지난날을 보낸 매일의 생애의 방식은 이 질문에 대답을 결정할 것이다. ... 우리들은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이 하고 새 해로 들어서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방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기를 간구하자. 새 해는 우리들 앞에 더럽혀지지 않은 백지를 펴놓는다. 이 위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올바른 목적과 순결한 동기로서 새 해를 맞이하도록 간구하자. ...

새 해가 시작되었다. 그대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지난 해의 기록은 어떠했는가? 그대의 하늘 기록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굴복하도록 그대에게 호소한다. 그대의 마음이 나누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주님께 바쳐라. 다가오는 해는 과거의 것과는 다른 생애의 역사를 이루라.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낮추라.” -4중언, 512.

“나는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 막 시작되는 새 해 동안에 그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대는 서로 싸우는 일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며 파괴시키는 일을 그치려 하는가? 혹은 아직도 남아 있으나 곧 없어지고 말 사물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시간을 바칠 것인가. 우리 백성이 주님을 위하여 진지한 사업에 종사할 때에 불평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멸하는 낙담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언제 모이는지에 관해서 말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증언들은 어둡거나 침침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용기로 가득 찰 것이다. 저희의 형제 자매의 실수에 대해서 또 저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대신 저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좀더 능률적인 교역자가 되기를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3.1.7.

“새 해가 시작되었다. 새 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한해의 역사를 기록했던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자.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한 해의 역사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 이제 막 과거가 되어버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가? 세상의 눈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만인이 읽게 될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 주신 자아 부정과 온유, 겸손과 인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범을 따르고 있는가? 이 새 해에는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땅을 갈고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의무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될 것이며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새 해를 시작하자.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자. 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영문시조, 1883.1.4.

“이 해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신중한 생각으로서 새 해에 들어서야 할 것이 아닌가? 형제자매들이여, 행복한 새 해를 맞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영문 시조, 1889.1.7. 📖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1895년 대총회 회보	4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6번(I)_A.T.존스	
진리탐구	11
영원한 삶_원동규	
시대의 징조	16
마지막 날 사건들_E.G.화잇	
절제와 부절제의 대쟁투	19
품성 형성과 절제(IV)_김동춘	
2020년 기도력	26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 제 26번(I)



AT.존스

우리가 주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알기 위하여 어제 저녁 읽었던 몇 구절을 반복하여 읽도록 하겠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인류와 밀접히 접촉하사 동정하심으로 개혁 사업을 시작하셨다. 저들의 종교는 종의 멍에였다.

혼인 잔치에서의 이적은 유대인들의 편견을 폐하는 일로 바로 행하였다. 예수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로이 섞이셔서 유대 국가의 관습과 완고한 신앙을 폐하였다.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세상에서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사마리아에서의 예수의 제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저들은 저들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적개심(enmity)을 품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분리의 벽을 폐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제쳐 버리시는 예수의 행위를 보고 저들은 이상히 생각하였다. ... 사마리아에 이들을 머무는 동안 예수에게 충성하여 저들(제자들)의 편견을 억제하였다. 저들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는데 실패하지 아니하였으나 저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이 꼭 배워야 할 교훈이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권위를 낮추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높이시기 위하여 오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편견과 그릇된 사상으로 곡해하였다. 저들의 무의미한 강요와 요구는 다른 국가의 백성

들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었다. 특히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주의 날이라 부를 수 없었으니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괴로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지피는 것이나 심지어 그 날에 촛불을 켜는 것 까지라도 금하였다. 백성들의 시야는 매우 편협하였으며 저들 자신들이 만든 쓸모없는 의식에 종이가 되었다. 안식일은 태초에 계획된 축복의 날이 되는 대신에 유대인의 가증한 요구 사항들로 저주가 되었다.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하였으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는 저들의 희망은 성소 봉사에서도 나타났다.

재난과 핍박들이 이방의 원수들로부터 빈번하게 올수록 유대인들은 신성한 율법에 의하여 명하여진 모든 외형상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관습으로 되돌아 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들은 이 의식들에 무거운 짐을 부과하였다. 저들의 교만과 완고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가장 협소하게 해석하도록 저들을 이끌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요구들이 원래의 율법의 신성함을 모두 소유한 것처럼 여길 때까지 저들은 유전과 저들 조상들의 관습으로 저들 주위에 장벽을 쌓았다. 저들 자신들에 대한 이러한 자만과 허례와 규칙을 수행하는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편견으로 저들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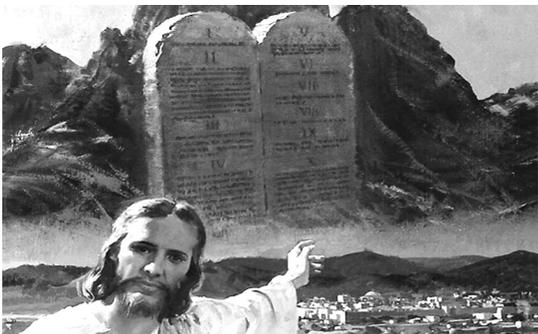
몇 구절을 더 읽어 보도록 하자.

“그의 모든 교훈 가운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형식적인 순종의 무가치함을 제시하셨다. ... 유대인들은 세속화 되었고 영적인 사물

들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모든 의식의 참된 의미가 되는 진리를 그들 앞에 제시하였을 때 표면적인 것만을 본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하였다. ...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금령과 요구에 의해 저들의 모든 생애가 얽매인 무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비의 사업을 강한 논쟁거리로 삼을 것임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안식일을 방해하는 사교의 무의미한 장벽을 무너뜨리 시는데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예수를 비난하던 자들이 그들의 무의미한 많은 의식들과 형식들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동안 주께서는 그의 자비의 행위로 그 날에 경의를 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본래의 위치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랍비들에 의해 주어 진 율법에 관한 해석들과 그들의 모든 경전과 무거운 요구 사항들은 안식일을 그분의 참된 목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거룩한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 개념을 세상에 전하였다. 저들의 가르침은 자신들도 지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더 더욱 지킬 수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속됨으로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사단이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는 행로를 취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동정심이 없으며 무자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도록 그 일을 행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조들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없애 버리시고자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진리의 보석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보석들은 부당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 보석들의 귀중한 빛들은 오류를 전하는데 이용되었다. 사람들은 그 보석들을 취하여 유전과 사교로 치장하였다. 예수께서는 보석들을 오류의 부당한 위치에서 빼내셔서 진리의 틀에 놓으 시려고 오셨다.”

그 때 당시의 백성과 그들의 의식보다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의 문제를 무엇이 더욱 더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는가? 이 구절들의 모든 말씀들은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단단히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똑 같은 것 -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 - 이 세상을 저주하고 있는 역사의 때에 살고 있다. 그 당시 그것을 거스려 성경에 기록된 똑 같은 진리는 이 시대에 그것을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이다. 그 당시 백성들을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으로부터 구원한 똑 같은 것은 형식주의의 허례와 의식의 무의미한 반복, 단순히 말하자면 형식주의로부터 백성을 구원한 똑 같은 것 - 그 당시에 백성들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한 똑 같은 것은 이 시대에서 백성들을 그것으로부터 구원해야 한다.

무엇이 그 당시에 형식주의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였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주 안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서 그 안에서 원수된 것이 폐하게 됨을 발견함으로 그 시대 백성들을 형식주의로부터 구원하였으며 이것보다 부족한 어느 것도 이 시대에 백성들을 형식주의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그것

보다 부족한 어떤 것도 제철일 재림 교인들을 형식주의로부터 구원할 수 없고 옛 의문의 율법의 행로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

[프레스콧 교수: 우리가 이 사상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단지 의문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았고 그것 보다 더 낳은 것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어느 곳에든지 의문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해 해도 되겠는가?]

그렇다, 바로 그것이 정확한 핵심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면으로 생각 해 볼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분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을 갖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마리아에서 예수와 함께있던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 되었는가? “원수된 것(enmity, 적개심)”, 그러나 죄, 자아는 모든 자아(自我)다. 적개심, 죄, 자아를 두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봉사의 의식과 형식들을 꼭해 하였을 뿐 아니라 이것에 의문을 산같이 더하고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 자신의 것들을 더하였다. 그것 모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였나?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였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형식이나 의문은 없으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어떤 형식이나 의문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이곳에서 그들이 구원을 잃어 버렸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 버린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며 이것은 형식주의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의 육체 가운데 적개심을 폐하시므로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헐므로 폐지된 의문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에 저희들의 신뢰를 두게 된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대신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단들을 - 십계명과 할례와 제사와 제물들과 번제와 죄를 위한 제사들을 - 다른 목적으로

취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제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취하여 그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이용하였으며 그것들을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이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행하는 데에서 의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평화를 찾을 수 없었으며 마음에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찾던 것들이 거기에 없었고 그들 자신에게서 모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것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수만가지로 세분화하고 궤변의 구별을 지음으로 그들이 구하던 의를 얻었다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명확한 선에 곧바로 나오므로 매우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로 그들이 고안하여낸 위대한 많은 것들을 더하여야 하였으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들의 고안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형식주의였으며 그것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행하여 졌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믿음외에 어떤 것도 사람을 의인으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거하시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목적을 위해 제정하신 이것들을 통하여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덕이 빛나게 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것 - 단순히 의롭게 되고자 일한다는 그들 자신들의 표현 - 들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그들이 시도하였을 때 그들은 참된 의를 잃어 버렸으며 그렇게 함으로 저들 가운데에 있는 자아는 예언의 신이 종종 표현하는 “가로막힌 담”, “분리의 벽”, “무의미한 요구 사항들”, “울타리를 두른” -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자주 반복해서 표현하신 - 것이라고 부르신 이것을 쌓게 되었다.

무엇이 그 장벽을 쌓도록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는가? 아니다. 누가 그것을 세웠는가? 저들 자신이었다. 그들 안에 모든 것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자아였다. 우리

가 자주 배웠듯이 그 자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에 복종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제자들이 “저들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가? 아니다. 그러나 개심을 품는 것,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장벽들을 쌓도록 한 단순히 자아의 표현인 적개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멸절 - 소멸 - 시키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멸절시킬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맨 위부터 시작하여 여기 저기에서 돌을 제거하는 것이 벽이나 건물을 무너뜨리기 쉽겠는가? 아니면 중간부터 시작하여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돌을 제거하는 것이 무너뜨리기 쉽겠는가? 아니다. 그대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기초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장벽은 넘어지고 건물은 무너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는 장벽을 온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장벽이 무너진 가운데 남게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의 기초를 치신 것이다. 그리고 샘의 근원 같은 모든 무의미한 장벽의 기초인 이 적개심을 “자기 육체로 폐”하심으로 장벽을 무너뜨리심으로 그와 더불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길버트: “의”라는 단어 자체가 곡해되어 “의”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선행으로 되어 버렸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의를 얻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유대인인 길버트 형제는 그와 같은 사상이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편만하고 “의”라는 단어, 의 자체에 대한 사상이 곡해되어 지금 그것은 자선을 베풀거나 옳은 것을 행하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써 단순히 그들이 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모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도가 없는 행위로 얻는 의이다. 그것은 모두 형식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1800년 전에 유대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악했던 것처럼 오늘날 제칠일 재림 교인들에게도 나쁜 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를 공언하는 모든 자는 그것을 소유한 것이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모든 자도 그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것은 단지 적개심의 열매이며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대들이 원수된 것(enmity)을 소유하면 그대는 형식주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원수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적개심이 거기에 있는 한 그것은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몇 군데에서는 그것을 나타내고 다른 곳에서는 민족의 테두리 - 독일 민족, 스칸디나비아 민족 등등 - 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것이 온전히 발전될 때에는 이 땅에 인종과 민족이 얼마나 있던지 상관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은 테두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개심이 폐하여 졌으며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는 인종의 테두리도 없고 스칸디나비아 민족이나 게르만 민족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테두리도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백인이나 흑인의 테두리도 없고 독일인이나, 불란서인이나, 스칸디나비아인이나, 영국인이나 어떤 다른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 위에 그리고 모든 자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안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저녁 프레스콧 형제로부터 들은 살아있고 거룩한 형상을 받기 위하여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적개심이 폐하여지기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결코 찾을 수 없을 - 제칠일 재림 교인들은 그것을 확실히 찾을 수 없을 -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 상태를 말해주며 그리고 이것은 제칠일 재림 교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

을 위한 현대진리이다. 아, 그것은 아직도 같은 외침인 것이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문제에 관하여 여기 다른 말씀이 있다. 그것은 양편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저희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희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나 저희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나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길 밖에 없었다. 저들은 바라보아야 할 것이었다.”



이제 현대 진리를 보라.

“그리스도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범한 비슷한 잘못에 빠지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느꼈다.”

누가 유대인이 범했던 것과 같은 잘못에 빠졌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뢰해야 한다고 느끼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와 같은 사람을 본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답을 허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믿음의 본성과 중요성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고 장사지낼 때까지 허락치 않을 원수된 것의 똑 같은 굳은 이끌림인 것이다. 그것은 “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충분히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십 계명을 지킬 것이며 또 지켜야만 한다. 나는 언약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할 수 있는 한 결사적으로 계명을 지킬려고 노력한다.

여기 파라르(Farrar)의 바울의 생애(Life of Paul) 중에서 40페이지에 있는 한 구절을 읽겠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는 경향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맹세로써 자신을 강요하여야 한다고 상상하고 가르쳤다.”

바로 그렇다. 만일 그대의 마음에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으면서도 왜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여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대는 옳은 것을 행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서명을 하고 맹세하기를 “아, 이제 나는 언약에 서명 하였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나는 그것에 기쁨이 없다. 그것은 짜증나는 멍에이지만 언약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그것은 형식주의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아인 적개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범한 비슷한 잘못에 빠지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의뢰해야 한다고 느낀다. 믿음의 본질과 중요성은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저들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대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질 때, 참된 믿음이 살고 그대의 마음을 주관하게 될 때 그대는 이것이나 다른 것을 행하려고 자신을 강요하기 위하여 맹세가 필요없게 된다. 맹세가 필요없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기쁘게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는 그의 육신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 싸우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개심을 폐하셨다.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람들을 분리하여 그리스도 대신에 어떤 다른 것이나 세우고 모든 것을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 해 아래 있는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적개심을 폐하셨다. 모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외에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혹은 어디에서든지 아무것도, 그 무엇도 구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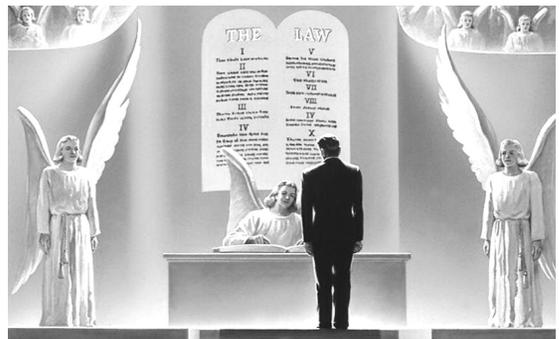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자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옛날의 형식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적개심의 일 부분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너무 강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저희를 당신의 속죄제물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들 자신의 선한 행위가 없이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분부를 받을 때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니고데모와 같이 외친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는 것 외에 더 이상 명백하게 가르침바 된 것이 없다. 사람은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는 거룩한 공의에 속죄물로 제시하나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다. 그가 만일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할찌라도 이것은 그의 과거 죄악들을 속할 수 없다.

율법은 사람으로부터 그의 전 생애에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의 장래의 순종은 단 한가지 죄라도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악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는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욘 14:4)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 진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자는 전연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불순종을 행하는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행위는 그 자신으로부터 나와서는 아니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셔야 한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자신 안에서 기뻐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러한 값으로 생각하므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속할 수 없다.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도 속죄물로 받아 질 수 없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회하심이 없이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 은혜는 나누어진 바 되어야 하고 사람이 회개하고 구속하시는 희생 제물이기 이전에 효력이 있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을 구주를 삼으셨느니라’고 선언하였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의 첫 계단을 밟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시는 자들은 먼저 회개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오직 그 안에 있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어느것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영혼을 구원받는 상태로 유지시킬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의 큰 문제는 주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섬기는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히 가까움을 표상한 제도들조차도 멀리 계신 분의 표로 취하고 이용한 것이다. 희생제물, 예물, 성막, 성전, 성전 의식이 모든 것들은 유대 교사와 백성의 큰 무리에 의하여 어떤 곳에 멀리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그것은 멀리 계신 메시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선하게 하므로 그분을 가까이 오시게 하려 했고 이러한 의식들에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겼으며 그것들이 의를 줄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나는 제철일 재림 교인들이 그것들은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제철일 재림 교인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과 성전의 의식들과 희생 제물과 예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은 멀리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예정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상으로 부터 벗어났는지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었다고 말씀되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었다. 그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까이 계신 그리스도이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의도하셨다.

1800년 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이 먼것 같이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매일 매일 그들의 살아 있는 경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 사상을 굳게 붙잡고 성전과 제물과 예물들 간단히 말하여 레위기에 나타난 복음을 연구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일 매일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살아 계신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리스도는 오늘 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살아 계신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온 성경에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복음과 그리스도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을 때에 희생제물과 예물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이 봉사를 통하여 언젠가 오실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기대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한 것과 똑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행한 바로 그 위치에서 세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결코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다.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구와 기구들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심을 그것을 통해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그분을 생각하도록 준비가 된 것인데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유대인들) 위하여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서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상태로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만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 같았을 것이다. 

영원한 삶



원 동 규

믿음의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재난이나 질고나 곤궁이나 기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하자. 그것을 보고 있던 용감하고 의협심 있는 사람이 그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차마 그냥 버려 둘 수 없어 몸소 우물 속에 들어가 자기의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건져내어 살게 하였으면 그 아이는 구원함을 얻은 것이요, 그 의협심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구원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사업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육신적인 어떤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 이상의 좀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다. 지난 과에서도 연구하였지만,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하였다.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졌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사업은 인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키심으로 모든 불행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인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놓아도 죄인이다. 구원은 죄인의 죄 자체와 결과를 없이하고

새 생명을 의의 품성으로 임하여 의인의 생애를 살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죄와 본성이 변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믿고 의의 새 생명을 받는 것이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죄, 즉 죄의 근성, 죄의 습관, 죄의 생활에서 건져내는 것, 둘째는,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한 운명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는 온갖 불행한 것—불안, 공포, 번민, 실망, 고통, 질병, 전쟁, 사망—을 저주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되 그것의 원인이 되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그 결과를 없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죄의 결과인 불행과 비참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먼저 죄의 근성, 죄의 습관,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죄 중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 곧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또 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의욕만으로 죄의 근성, 죄의 습관, 죄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기이한 감동을 받아 회개함과 중생의 새 경험을 얻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결심한다. 나는 나의 못된 악습을 완전히 끊어 버리려고 한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성향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류를 복용하는 습관, 혹은 도박과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등의 여러 가지 악습을 끊어 버리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그 결심은 마치 썩은 새끼와 같아서 오래가지 못하고 끊어 버리고 만다. 속담에 “지어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말과 같이 된다. 죄의 습관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은 그 자체력이 몹시 약해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결심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 죄의 종이 된 자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스스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근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절망 중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하고 탄식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근성을 제거해 보려는 사람은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타고난 죄의 근성이 그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죄니라”(롬 7:14, 19, 20)고 하였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자기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자기는 결국 죄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실망한 것이다.

죄의 결과에서 온 운명

헬라, 즉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에 가 보면 매우 기괴한 화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옛날 헬라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등에 죽은 자의 시체를 지우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그 시체의 독이 그 죄수의 몸에 스며들어 죽을 때까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그 시체를 그냥 한 곳에 장사하였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화석이 되어 오늘날 아테네 박물관에 전시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참혹한 형벌을 상상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하고 탄식하였던 것 같다. 그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마치 사형수와 같이 죄에 속박되어 죄의 독을 받아 죄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연 인간은 모태로부터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은 악한 성질을 유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향을 타고났으므로, 죄를 범치 않고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울은 이르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10, 12)라고 하였다. 또 이르되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의 결과인 그 삯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의 고통과 현실에서의 사망 뿐 아니라 장차 있을 제 2의 사망, 곧 영원한 멸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은 아무 희망도 없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구나 이러한 자신의 절망 상태를 자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행 16:30)라고 부르짖게 된다.

이 말은 옛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다가 바울의 만류함을 듣고 그를 향하여 호소한 말이지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고 스스로 반문해 볼 일이다. 이에 대하여 무슨 훌륭한 답안은 없을까? 바울은 그 간수에게

명확히 대답하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하였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곧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 그러한가? 예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유전으로 인한 죄의 근성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으나, 예수께서는 신성으로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한 갖은 시련과 유혹과 고통을 당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시고 홀로 죄 없는 생활을 사시어 의를 이루셨으며, 죄가 없으시니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르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단정한 말이다.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 4:25)고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38, 39) 하였다.

즉 의로우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불의한 우리를 죄 없는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르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하였다.

이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와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으로서 의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죄에서의 구원이니, 바울이 말하

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하였다.

위에서도 말하였거니와, 의를 행한다든지 믿는다는 것이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 의욕을 밀어 주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서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과 믿어야 하겠다는 간절한 욕구가 솟아나지 않으면, 또는 어떤 자극과 깨달음을 주는 동기가 없으면 결코 믿거나 의를 행할 수가 없다. 비록 자극과 감동을 받아들이거나 저버리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기는 하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는 일종의 선물인 것이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를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을 말함인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설명하고 있다.

믿음이란 희망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현실로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는 것이요, 또 보지 못한 일을 본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확신하며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믿음이란 단순히 사실에 대한 확신뿐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모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줄 줄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태도이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롬 10:17)는 성경 구절도 있거니와, 우리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진리를 이해하고, 영적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바 진리를 확신하게 되어 믿음이 더욱 발전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신앙심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마음이 신의 감동과 영적 체험을 쌓는 데서 점점 더 발전되고 강화되는 것이다.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곧 믿는 자인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와 영적 능력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마음문 밖에 지켜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고대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문을 열기만 하면, 곧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며 같이 사신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언제나 강조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 5) 하셨다.



신앙 생활이란 확신인 동시에 신뢰의 생활이요, 좀더 철저하게는 예수와 연합된 생활이다.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 때, 우리의 무력함은 강력함이 되고, 우리의 불가능은 능력이 된다. 나의 악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선이 나를 지배한다. 이 일에 대하여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하였다. 또 이 믿음 안에서의 생활의 능력에 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의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명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을 장려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사람

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드디어 말과 행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버림을 받으리라”(요일 1:7 참조).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하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여야 할 것이니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세력은 충성되고 율법을 높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목사는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와 새 전도 지방에 소개하여 듣는 자로 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저희의 구원이시며 의이심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는 믿음을 방해하려고 계책을 꾸민다.”(복음교역자 163, 164).



마지막 날 사건들

E.G.화잇

남은 자손의 생활 방식과 활동들(1)

봉사와 자아 희생의 정신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갖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하여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와 국외의 필요되는 분야에서 지정된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되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적, 111(영문)(1911).

어디에서나 단체의 사업이 개인의 노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혜는 통합하고, 한 곳으로 집중하고 큰 교회들과 기관들을 세우는 데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선 사업을 기관과 조직체에 일임시킨다. 그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냉랭해져간다. 그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무감각해진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사랑은 심령 속에서 죽어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 곧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 주신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원회나 조직된 자선 단체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 책임,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필요 조건이다. -치료봉사, 147(영문)(1905).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눅 19:13]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끝날 날이 몇년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장사해야 한다. -리뷰, 1896.4.21.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그분의 재림을 조용히 묵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편지 28, 189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당신을 기다리는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 거래에 종사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들에서 씨를 뿌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수확할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을 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원고 26, 1901.

그대가 이 세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박력 있게 하라. -교회증언 5권, 492(1899).

매일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이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203(1882).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매일의 업무를 행함

에 있어서 매 순간,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영원히 계신 그분의 힘에 의지하여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다. -편지 66, 1894.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한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대로 추진하든가 포기하든지 하라. -교회증언 7권, 44(1902).

양심적인 안식일 준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안식일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그분을 앎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신다. -교회증언 6권, 349(1900).

한주일 내내 우리는 안식일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것을 계명에 따라 지키기 위해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적인 문제로 준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삶의 모든 국면에 미치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안식일을 이처럼 기억할 때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옛세대안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안식일에 행해지도록 남겨져서는 안 된다. -교회증언 6권, 353, 354(1900).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일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병자는 반드시 돌보아야 하며 궁핍한 자들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 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를 게을리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다른 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괴로움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시대의 소망, 207(영

문)(1898).

십일조와 연금 드리는 일에 충실함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떼어 놓으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은 복음 교역자들을 부양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져야 한다. ... 말라기 3장을 주의깊게 읽고 하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라. -교회증언 9권, 249(1909).

신약 성서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십일조에 대한 법도 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그 정당성이 확인되고 깊은 영적인 의미가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66(영문)(1882).

주께서는 각 곳의 제철일 재림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사업을 조력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들이 후하게 선물과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교회증언 9권, 132(1909).

임종시의 자선은 살아 있을 때의 자선에 비하면 빈약한 대행물이다. -교회증언 5권, 159(1882).

우리가 때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사업의 필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60(1882).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품성에 이기심의 때가 묻어 있는 자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소유를 위탁하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영원한 부를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신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2(영문)(1893).

새로운 기관을 세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면 학교나 요양원, 그리고 식품 공장 등을 더 세울 필요가 있는가? 젊은

이들이 상업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발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게으르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그 생각을 가짐으로 우리는 인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의료선교, 268(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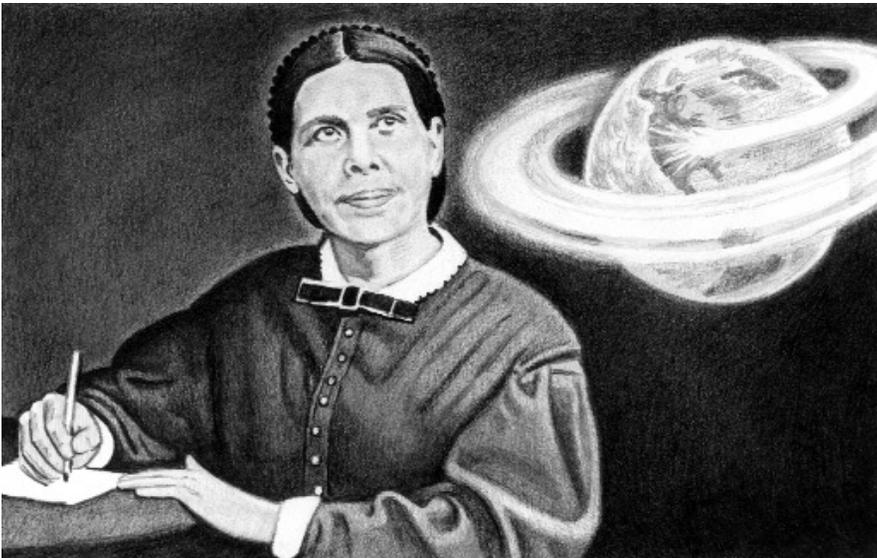
전세계에 한 위대한 사업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되는 다양한 기관들을 세우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교회를 짓거나 학교나 인쇄소를 짓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다면 그 때 우리는 일손을 멈추고 그리스도께서 사업을 종결지으시게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인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

내 보일 때이다. -교회증언 6권, 440(1900).

의료 선교 사업

종교적인 핍박으로 우리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게 될 때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회가 있는 동안에 자신들을 위해서 질병과 그 원인, 예방과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많을 것이다. -건강에 관한 권면, 506(1892).

나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목회 분야의 사업은 끝날 것이지만 의료 선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건강에 관한 권면, 533(1901). 📖



품성 형성과 절제(IV)



김 동 춘

서 문

“육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과 구김 없는 심정을 얻는 일에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위장이 적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방해될 것이다.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한다. 그릇되게 먹고 마시면 그릇된 생각과 행동이 나타난다.” -9중언, 160

“우리가 건강을 해하기까지 식욕에 방종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이생의 자량이 주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실 수 없으시다.” -음식, 57.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2중언, 400.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과학적이고 생리학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건강 상식이다.

1. 온도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자기 체온 정도 되면 소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물을 함께 마시면 소화 효소 분비를 막아 버리고 찬



물이나 찬 음식은 소화력 감소와 음식을 데우기 위해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며 위에서 오래 지체되면 발효가 된다.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소화 불량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에게 온 환자 중에 위장을 떼어 내고 쓸개와 십이지장 일부를 떼어 낸 환자가 있었는데 말을 들어보니 “나는 차게 되지 않은 물, 과일도 찬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차게 먹는 식습관이 내 병의 원인이 되었군요.” 하면서 한탄하는 것을 보았다. 소화의 생리학(과학)을 모르면 이런 결과를 맞볼 수밖에 없다.

여름철에 제일 실수하기 쉬운 습관들을 보면

- 미숫가루에 얼음을 넣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는 일
- 수박을 차게 하여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는 일
- 음료수, 아이스크림, 냉동 음식 등

이렇게 먹은 후에 경험해 보면 위장에 들어 있는 음식물이 발효(술) 되어 머리가 몽롱해 지고 술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진다.

어느 대학생이 심한 아토피로 저희 집에 왔는데 식습관을 점검하는 중 학생은 “수퍼마켓에서 아이스크림 50% 할인 판매를 할 때 1박스씩 사서 수시로 먹었다.”는 것이다 걱정 체

온 보다 1도가 낮으면 면역계는 30% 하락하는데 그 때 몸 안에 바이러스는 머리를 들고 활기를 얻어 피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이 피부병(아토피) 원인 중 하나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들이 발하게 된다.

* 신체가 따뜻해야 효소가 활성화 되고 면역이 강화된다.

●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체내에서 곧바로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 반드시 효소의 촉매 작용을 통해 음식물이 분해, 흡수, 합성이 이루어진다. 효소에 의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우리의 인체는 5,000여 종의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몸 안에 3,000여 종의 효소가 있고, 2,000여 종의 효소는 음식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대부분이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 몸이 따뜻하면 체내 3,000여 종의 효소를 모두 작동시킬 수 있으나 몸이 차면 효소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차면 효소 작용을 못해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소화 흡수가 안 되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효소는 촉매 작용이 탁월하다. 효소는 상온, 상압, 최적 PH(약 알칼리) 등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반응한다.

효소의 주체는 단백질로 되어 있어 고열, 강 산성, 유기 용매 등에 의해 그 작용을 잃게 되고 효소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 산성, 강 알칼리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 강 산성 식품 : 육식, 흰 쌀, 흰 밀가루, 설탕(가공된 것), 가공 식품 등

● 알칼리 식품 : 채소, 과일, 통곡류, 견과류를 균형지게 섭취하면 좋은 체질(약 알칼리)을 유지할 수 있다.

● 생채나 과일류는 35℃~46℃까지는 효소 작용이 2배가 되지만 47℃ 이상이 되면 효소는 파괴된다. 그러므로 적정 체온(36.5℃)을 유지하여 효소 촉매 작용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열을 내어 주는 음식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체온이 찬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식을 섭취하여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 몸 안에 침체 되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제거 될 때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져 체온이 상승되어 신진대사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면역도 상승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약 150년 전에 건강 개혁자 엘렌.G. 화이트는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음식을 매우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지 말 것이다. 만일 음식이 차면,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위장의 활력[전기 에너지]을 끌어간다. 찬 음료는 이런 이유로 유해하다.” -치료, 305.

“찬 음식으로 위의 활력이 감소된다.” -2증언, 603.

“뜨거운 음식과 음료는 위장과 인후, 소화기관이 약해지며 또 다른 신체기관들이 약화된다.” -2증언, 603.

“뜨거운 음료는 쇠약의 원인이 된다.” -2증언, 603.

“음식이나 음료수가 차면 소화시키기 위하여 온기를 줄 때까지 소화 작용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건강, 123.

“음식은 따뜻해야 하지만 뜨겁지 않게” -2증언, 603, 1870.

“나는 모두가 매일 아침에 따뜻한 것을 먹기를 권한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것을 할 수 있다.” -2증언, 603.

2. 가지 수

현대인들의 병이 식사의 가지 수에 의해 일어나는 원인이 많다. 식습관과 식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물 섭취는



단순하게 요리되고 가지 수를 적게 먹을수록 소화 작용이 잘되므로 깨끗한 피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위장에 넣으면 음식물이 부패되

어 나쁜 피를 만들어 병 체질을 만든다. 그리하여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당뇨, 고혈압, 심장, 신장, 암 등의 질환을 앓게 된다.

여러 가지를 섭취하는 것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 여러 가지는 음식의 종류를 배합법칙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수를 말하지만 골고루 섭취란 편식을 하지 말고 건강식을 균형지게 하라는 것이다. 기름진 음식,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맛을 내는 음식들은 영양에 관계없이 미각을 즐겁게 하는 미식(美食) 위주로 만들어지므로 현대병이 많이 발생한다.

아파트 단지 앞 마트에 가보면 각종 요리된 음식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직장인들에게 편이점이 되어있다. 먹고 싶은 요리된 음식을 사서 먹는 편리한 음식 문화가 되었다. 또한 배달 문화가 발달하여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이내로 집까지 배달된다고 한다.

여름에는 음식이 빨리 변질되므로 보존제를 다 사용하고 있다. 먹고 나면 속이 편하지 않고 모두들 말한다.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중언 (요약)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를 먹지 말라.” -음식, 127.

“음식을 다양하게 창의력을 가져라.” -음식, 127.

“위장이 끼니마다 같은 음식을 취하지 않게 하라.” -음식, 127.

“단순하게 그리고 구미가 당길 정도로 품위 있게 준비하라.” -2중언, 186.

“많은 사람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병든다.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이 위에 들어가 썩는 결과를 빚어낸다. 이 상태가 심한 병을 초래하고 빈번히 죽음이 뒤따른다.” -음식, 127.

“각종 음식의 특성을 파괴하고 먹는 습관이 고통을 일으키며 자주 죽음의 원인이 된다.” -월고 86, 1897.

“여러 가지 음식으로 위를 무겁게 짐 지우느니

보다는 한 끼에 오직 2~3가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서신 73, 1869.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습관은 빈번히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이리하여 섬세한 소화기관에 심한 손상이 일어난다.” -8중언, 257.

3. 건강적인 요리

요리는 과학임과 동시에 예술이다. 생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잘 보존하도록 위생적이고 단순한 요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음식은 피를 만들고 생명의 유지는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 채식요리법을 철저히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요리하는 과학은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생명과 직결되므로 매우 중요한 과학이다. 과학 중의 과학은 구속의 과학이다. 그러나 이 구속의 과학을 내 안에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요리 과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류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지구는 병자의 수용소가 되었다.”

우리 인체는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기본 영양소)가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결핍으로 오는 질병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몸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건강 채식 요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적인 방법들이 요구된다. 균형진 영양식을 어떻게 요리하여 섭취 할까? 요리를 단순하게 할수록 건강식이 될 수 있다. 기름을 적게 쓰고 인공 조미료(화학 조미료),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향신료 등 수 없이 많은 조미료를 쓰면 쓸수록 피를 불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혼란이 오게 된다.

○ 고추나 후추, 겨자와 같은 자극성이 있는 것은 요리(가열)를 해도 그 자극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식초, 화학 조미료는 화학 성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리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양파나 마늘, 생강, 파는 요리(가열)

하면 자극성분이 감소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 기름에 튀긴 요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금은 가능하면 생활 죽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오염되어 소금에 중금속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금속 물질은 1,000℃ ~ 1,300℃로 태우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일반 소금(천일염, 제재염, 맛소금)으로 너무 짜고 맵게 먹는 습관은 위암과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소금에 짜게 절인 생선과 젓갈 음식은 위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 젓갈은 생선 단백질이 발효가 아닌 썩은 것이기 때문이다.

○ 채소 요리를 할 때 엽채, 과채, 근채를 균형 있게 요리하므로 완전식을 할 수 있다.

○ 채식가들은 무조건 채소와 과일을 생것으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여 요리(삶은 음식)하지 않고 원형, 생것으로 섭취하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혈액이 묽어지고 피에 열이 없어 소화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소화력 감소로 설사, 기력 쇠진, 체온 미달로 면역 저하, 효소 생산 정지 등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채식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 삶은 것 75%, 생것 25%를 먹고(채식가)

○ 육식하는 사람들은 삶은 것 25%, 생것 75%를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생것은 열을 내리고 삶은 것은 열을 올려 주기 때문이다.

육식가는 몸에 열이 많고 피도 탁하고 열을 내려야 하지만 채식가들은 열을 올려서 소화 작용과 대사 작용, 효소 생산에 그리고 면역계를 높이는데 지장이 없고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구입한 조리된 음식들은 눈과 미각에는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좋은 피,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데는 장애를 일으킨다. 오래 동안 비 건강적인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좋은 식품(합당한 식물) 이라도 요리 과정에서 비 건강적이며, 비 위생적인 요리를 만들어 먹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건강 채식 요리를 연구 개발해서 건강식을 해야 한다.

건강식(요리)의 목적은 무병하여 오래 동안 건강하여 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깨닫고 건전한 믿음 생활, 하늘의 사물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품성을 이루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건강적인 요리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은 증언을 들어보자.

건강적인 요리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결핍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음식은 ... 꾸준히 그리고 분명하게 소화 기관들을 손상시키며, 나쁜 피를 만든다. 그러므로 그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의 공격을 빈번히 받으며, 때로는 사망한다. ... 요리를 잘못하면 질병과 좋지 못한 성질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신체에 혼란이 생기게 되며, 하늘 사물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좋은 요리에는 그대가 그것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생각보다도 더 많은 종교가 있다.” -음식, 256, 257, 1890.

“불충분한 음식과 요리를 잘못된 음식은 조혈 기관(造血器管)을 약화시키므로 혈액의 질을 나쁘게 한다. 그것은 신체 조직을 착란(錯亂)케 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동시에 신경과민과 우울증을 가져온다.” -음식, 257.

“잘못된 요리로 희생된 자들은 실로 허다하다. 많은 무덤 위에는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 과로로 사망함’이라고 기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치료, 302.

“많은 영혼들이 좋지 못한 요리법의 결과로 잃어버림을 당한다.” -음식, 257.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음식, 257.

“그것(음식)은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정신적 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크게 의존된다. 그러므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중요하고 숭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 475.

“생애가 유행적인 식사에 희생됨 - 교육, 건강,

안락이 유행의 제단에서 희생된다. 심지어 음식상을 준비하는 데서까지 유행과 과시가 해로운 감화를 끼친다.” -음식, 258.

“연구하고 실제로 해보라.” -1증언, 685.

교육의 한 중요한 분야, 식사는 생명과 관계된다. 잘못된 사랑은 딸들로부터 요리하는 기회를 막는 것이다.

“요리하는 공부는 음악보다 더 필수적임” -음식, 263.

피아노, 올겐 레슨 : 요리 강습

“요리하는 법(비결)을 가르쳐야 한다.” -1증언, 682.

좋은 요리에 좋은 종교가 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건강 생활의 과학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다.” -7증언, 113.

4. 합당한 식물

우리 몸에 합당한 식물을 의미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다(창 2:7).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창 1:26).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먹어야 할 식물까지 선정해 주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창 1:29)

흙에서 나온 식물이라야 흙으로 만든 사람의 체질에 합당한 식물이 된다. 이것을 1차 식물이라고 말한다. 2차 식물은 동물이 식물을 먹고 자란 그 몸을 사람이 먹으면 2차 식물을 먹는 것이다. 2차 식물을 사람이 먹으면 불합당한 음식물로서 부작용이 인체에서 일어나게 된다. 노아 홍



수 후에 식량이 다 떨어졌고 농사도 짓지 못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을 대치 식물로 허락하셨다(창 9:3, 4). 대치 식물을 허락하시면서 먹는 방법까지 알려 주셨다. “피를 빼고” 먹도록(창 9:4) 하였고 농사를 지어 생산이 될 때 까지만 먹고 “되돌아 오라고”(음식, 81)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 맛, 기름 맛을 본 후에 동물의 고기를 계속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체는 불합당한 음식물(육식)로 인해 병들고 사람들의 성품까지도 포악하고 잔인해 지면서 동물을 재미로 죽이고 사람까지도 재미로 죽이게 되었다. 부도덕한 사회, 살인, 절도, 강간 등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온 세상을 휩쓸고, 하나님 대신 자연신(해, 달, 나무 등)을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행위로 나타내고 하나님을 반역하므로 홍수(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홍수 후에도 사람이 계속 짐승의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은 주의 사항 들을 말씀해 주셨다. 성경 레위기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한 것(사람이 먹어도 되는 동물)과 부정한 것(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동물)을 구분해 주셨다. 먹더라도 큰 해를 받지 않도록 기름과 피를 빼고 내장까지 제거된 것을 허락하셨다(레 7:23~27 참조).

어떤 피조물(동물, 곤충)이라도 잡아먹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는 도살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 죽음도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종과 부절제로 고통과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곳인 에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5. 불합당한 식물

몸에 합당치 않은 식물들을 의미한다.

몸에 불합당한 음식은 몸(세포들)이 감당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불합당한 탄수화물과 불합당한 단백질, 특히 삼



백 식품인 흰 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정백된 식물과 불합당한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효소가 없어 몸 안에서 중화시켜 내보내지 않으면 몸이 해를 받기 때문에 육식(강한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몸 안에 있는 알칼리 물질(칼슘)을 빼 내어 속히 몸 밖으로 내 보내야 하는데 이때 피 속에서와 뼈 속에 있는 칼슘(이온 칼슘)을 공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뼈에 구멍이 뚫려 골다공증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것은 뇌 세포를 육식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로 인하여 심한 상처를 입힌다. 그리하여 뇌 질환, 뇌경색, 뇌졸중, 치매, 알츠하이머, 중풍 등이 발생하고 신진대사 부진으로 피에 독성물질이 쌓여 피를 정화시켜 주는 신장 사구체는 점점 막혀 제 기능을 상실하여 인위적으로 피를 걸러 주는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 이것을 신부전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심장 질환 등 순환계 병을 많이 앓고 있다.

신진대사 부진으로 오는 질환의 대표적인 병은 고혈압, 당뇨, 각종 암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은 불합당한 탄수화물과 불합당한 단백질이다.

불합당한 지방

몸에 들어가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지방들을 불합당한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동물성 지방을 포화지방이라고 한다. 피 속에 들어가면 동맥경화와 적혈구와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뇌에 꼭 필요한 산소 전달이 안 되어 뇌졸중을 일으켜 심하면 반신불수, 언어·시신경 장애 등 심각한 병을 유발시킨다.

• 치유를 위한 음식물 섭취에서는 정제된 지방은 삼가고 자연식 속에 들어 있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완전하다. 흔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어른까지도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

• 가공 식품류 : 유제품, 과자, 빵, 사탕, 아이스크림, 라면, 튀긴 음식들

마치 선악과로 유혹한 뱀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 하와처럼 되지 말자. 각종 유제품 속에는 포화지방(동물성 지방)과 트랜스 지방(마가린, 땅콩버터, 고열로 추출한 지방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유제품들을 조심하자!

○ 합당한 식물에 대한 증언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하신 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고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러한 식물은 보다 복잡하고 자극성 있는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주는 것이다.” -음식, 82.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돌아와 단순한 과일과 채소와 곡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신다.” -음식, 81.

“그분은 본래 인류에게 주어진 식생활로 그들을 되돌아가게 하고 계신다. 그들의 식사는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재료에서 나온 식품으로 이루어진다. 이 식품에서 주로 사용된 재료들은 과일과 곡식과 견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뿌리들도 사용될 수 있다.” -7증언, 125, 126, 1902.

“재빠른 식별력에 도움이 됨(단순한 식물)” -음식, 82.

“많은 고통에서 구제함” -음식, 83.

“인내의 보상(열매를 맺음)” -음식, 84.

“단순한 접대 -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단순하고 품미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여 건강에 좋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마련해야 한다.” -음식, 89.

“자제력은 식탁에서 시작한다.(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음)” -3증언, 488.

“정성껏 만든 잔치가 짐스러우며 해가된다.” -6증언, 343.

“일시적인 음식에 대하여 보다 영적 음식을...” -음식, 89.

“단순하고 건강적인 음식 - 진리의 성화시키는 능력을 줄 것이다.” -5증언, 206.

“무관심할 문제가 아님” -음식, 91.

“조잡한 식사(빈식)는 건강 개혁의 신의를 떨어뜨림” -음식, 92.

“계절과 기후에 맞게 사용함(풍토에 맞는 음식)” -음식, 94.

“각 나라마다 자양분 있는 식물이 있다.” -음식, 94.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품의 모든 요소(영양소)가 발견되었다.” -음식, 310.

○ 불합당한 식품(자극성 식품)

- 화학조미료 (음식, 392)
- 불합당한 단백질(육식) (음식, 420)
- 음료수 - 청량음료수 (음식, 488)
- 지방 (음식, 403, 441), 정제된 식용유
- 후식(설탕이 들어간 모든 유제품 등) (음식, 378)
-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 (음식, 398~400)
- 소금 (음식, 400, 401)
- 식초와 피클 (음식, 401, 402)

“이런 것들은 위장을 혼란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지성을 약화시킨다.” -음식 236.

결론

•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자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몸에 건강치 못한 상태를 초래할 것은 아무것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왜 그런가? - 그 이유는

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생취하여야 할 면류관과 얻어야 할 하늘과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는 그대 앞에 명료하고도 분명한 빛줄기로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돌아서서 말하기를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저것이 좋다’고 끝내 고집할 작정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대 각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위대하신 돌보심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협력하여 온 몸과 혼과 영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며, 성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 -음식, 328.

• 우리의 결심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의 살아 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겠다고 친히 서약하셨다.” -음식, 17.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요구는 신성하게 준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 중에 어떤 것은 행하기에 손쉽기 때문에 받아들여 준행하고 어떤 것은 그것을 준행하려면 희생을 치러야 함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저하시키며 그들이 끼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한다. ‘주께서 가라사대’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규준이 되어야 한다.” -자서전, 23.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2020년 기도력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엘렌 G. 화잇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3, 14).

말씀은 거룩하신 존재자이시며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써 존재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언약의 증보자이셨으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요 1:1). 인류와 천사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요 1:3)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결정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께서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뚜렷한 하나님의 개성을 가지시고 존재하셨으며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의 탁월한 영광이셨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을 호령하시는 사령관이셨고 천사들의 숭배와 존경을 그분의 권리로써 받으셨다. …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실로 신비에 속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영문시조, 1899.4.26.

천국 총회에서 임명되신 주님께서서는 인간의 교사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풍요한 자비심은 우리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다. 영원한 말씀이 무려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 하늘의 주민들은 경탄하여 마지않았다. …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은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는 있어도 말할 수는 없다. -교육에 관한 특별증언, 173, 174.

완전하신 구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궁정을 떠나셔서 그분의 높으신 보좌로부터 내려 오셨으며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한 인간이 되셨으며 그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에 까지 자신을 낮추셨으며 이것은 인간을 높이기 위 하심이었으며 인간으로 신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 시기 위하심이었으며 인간이 정복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하 심이었다. -영문시조, 1891.6.15.

우리가 원수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는 고통과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 위대한 희생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심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을 품는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그분께 드러야 할 봉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만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를 영접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만일 주님의 성령이 심령 속에 거하신다면 죄는 그곳에 거할 수 없다. -리뷰 앤 헤럴드, 1886.3.16.

왜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답고 여자다운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려고 다짐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며 나는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분의 도덕적 형상을 되찾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원수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말라. 그대들을 실망시키려는 원수의 능력에 대해 말하지 말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그리스도를 말하라. 우리는 온전하신 구세주를 모시고 있으며 인간들의 죄, 곧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할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안에서 쉽고 평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문시조, 1889.3.18.z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믿음에는 얼마나 넓은 기초가 놓여져 있는가! 믿는 자의 영혼 앞에는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가는 여정의 때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혜사로서 또 인도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혹에 대한 방패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고 모음 3권, 18.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날 그분의 백성에게 행하신 바와 같은 현저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 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앞길이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난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 갈 때에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매일의 중요한 의무들이 있으며 한 사람도 면제되지 않았다. 현재의 의무는 지금 행해져야 하는데 이는 시간은 짧고 한번 주어진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한 순간을 지체할 위험이 있다. 하나님은 운유한 자, 겸손한 자,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빛이 되실 것이나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 침착하지 못한 자,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의 구름이 되실 것이다.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실 어느 때나 장소로 갈 준비를 하는 자들의 길에는 빛이 비출 것이다.

생애의 때 발걸음은 믿음의, 성별된 사랑의 길이 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생애의 전 여정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제안하신다. 만일 우리가 어두움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길을 밝고 즐거운 길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임재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믿음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영문시조, 1880.11.11.

동방박사들의 믿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1, 2).

천연계를 탐구 하는 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숨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았다. 히브리인의 성경에서 그들은 야곱에게서 별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 … 그들은 빛을 찾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두움에 묻혀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지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인도하였다. -각 시대의 대쟁투, 315.

주께서는 우주의 위대하신 구원자이시며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가 지으신 만물에서 나타난다. 그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여러 나라에 있는 자들의 큰 궁핍을 보신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더 좋은 길을 배우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빛에 주리고 목말라 있으며 더욱 위대한 담보물과 더 깊은 신령한 것을 그리워한다. 그들의 마음은 깊이 격동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더 깊은 역사가 요구된다.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부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극기와 자기희생의 생애는 동료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에 마땅히 종사해야 하고 종사해야 할 사람들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견책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79.2.6.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주리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 많은 사람의 사업이 그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과 근면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세상의 가장 먼 곳에서까지도 이 일의 감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리뷰 앤 헤럴드, 1913.10.9.

유년과 청년 시절의 예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예수께서는] 비록 하늘의 임금이요 영광의 왕이셨으나 베들레헴에 아기로 탄생하시고 얼마 동안은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아기로 지내셨다. 소년시절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어린이로써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그때 그는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소년답게 말하고 행동하셨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이로써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부모의 명령을 준행하고 가사를 도와 드렸다. …

그리스도의 생애는 어려서부터 매우 활동적이었다.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오히려 그분의 부친 요셉과 같이 목수 일을 하셨다. 그분의 직업은 의미가 있는 직업이었다. 그분은 품성을 건설하는 분이요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했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완전하셨던 것처럼 세속적인 일에도 완전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많은 유년과 청년들이 가정에서 책임을 나눠짐으로써 부모에 대한 효성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해 버린다. 청년들은 다른 사람이 져야 할 많은 책임들을 저희의 튼튼한 어깨에 짊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청년들처럼 오락을 즐기는 일에 시간을 바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서는 부지런히 성경 연구에 전념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성경 가운데 귀중한 교훈이 가득 차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정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성실하셨으며 이른 새벽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 있는 대신 한적한 장소에서 성경을 연구하셨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사업과 중재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그에게 있어서 잘 아는 문제들이었으며 특히 그분 자신의 굴욕, 대속 및 중보에 관한 예언들은 더욱 익숙한 문제들이었다. 유년과 청년시절에 이 지상에서의 그분의 생애의 목적은 언제나 뚜렷하였다. …

예수께서는 그분의 일을 즐겁고 재치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돕는 자가 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였다.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청년 지도자, 1909.5.25.

겸비한 수고의 존엄성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우리 구주의 초기 삼십 년의 생애는 은거해 계신 중에 지나갔다. 그분께서 나사렛 언덕의 농부들과 일꾼들 사이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영예를 받지도 못하신 채 생애하실 때, 봉사하는 천사들이 생명의 주께 시중들었다. -리뷰 앤 헤럴드, 1882.11.14.

명예로운 사업은 하늘의 재가를 받은 것이며 남녀들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을 가져야 하고 더구나 생애에서 가장 겸손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감추시고 목수로서의 비천한 직업을 충실하게 행하셨으며 그러면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거품 이는 바다의 흰 물결 위를 걸어 오신 분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변변치 않는 일에 종사하시면서 대다수의 인류에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인류를 하나님의 낙원에서 살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비천한 직업을 품위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생의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존귀나 인정을 받지 않으신 채 오랫동안 나사렛에 거하셨다. 하늘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인성을 쓰시기 위해서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과 가장 미천한 직무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게는 하나의 오묘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시사 인간의 수고와 슬픔과 피곤을 경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종교를 그들의 사업과 분리시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본에 의해 질책을 받는다. 나사렛의 언덕 가운데 은거하시면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었으나 그는 단순한 목수로서 맡겨진 일을 하시고 모든 낙담에 직면하면서 경건한 생애를 사시었다.

기계공이나 상인이나 변호사나 농부로서 그리스도교의 교훈을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지위에 대한 이해를 받고 또 이해를 받는다는 그 사실에 의하여 곤란의 절반이 미연에 방지되는 인정받은 선교사로서 개방된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많은 은혜와 엄격한 품성의 단련을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을 성스럽게 하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에 따라 모든 세상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공장과 사무실 안으로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강한 영적 신경과 체력이 요구된다. -건강개혁자, 1876.10.1.

주의 길을 준비함

“그 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마 3:1-3).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부패한 감화로부터 물들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려고 감히 시도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본성적인 애정이 그에게 덮으로 입증되지 않도록 자신을 그의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는 자신을 불필요하게 시험받는 자리나, 사치나 생활의 편리함이 그를 안일에 빠지게 하거나 식욕을 만족시켜서 그의 육체적·정신적인 힘을 약화시키도록 이끄는 곳에 놓지 않았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은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었다.

그는 광야에서 자신을 궁핍과 외로움에 내맡겼으며, 거기서 그는 그분의 위대한 자연의 책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엄숙한 생각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거기서 그분의 놀라운 사역에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도덕적인 훈련에 충실하고, 자신 앞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끊임없이 간직하기에 적합한 분위기였다. 그리스도의 전령인 요한은 악한 대화와 세상의 더럽히는 영향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는 죄가 자신에게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그의 양심에 끼치는 영향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집을 광야에 선택했으며, 여기에서 그의 생각은 환경에 의해 왜곡되지 않을 것이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예롭게 하시고 그에 대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의 모본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2.11.14.

요한의 훈련은 사회의 일상적인 관습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당시의 백성들의 생각에 더욱 고상한 인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그들에게 깨우치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의 품성을 하늘의 모형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 광야는 그의 교실이였다. ... 그의 생활 습관은 매우 순결하고 자연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치우침이 없었고 그의 품성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릇된 감화로 왜곡되지 않았다. -건강개혁자, 1880.2.1.

우리의 사명은 회복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마 17:11-13).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두번째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역시 요한이 하던 바와 같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하신 기별은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한 기별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암 4:12)는 것이다. 우리의 기별은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이 단도 직입적이어야 한다. 요한은 왕의 죄악을 책망하였다.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사업도 신실하게 행해져야 한다.

요한도 천성적으로 보통 사람과 같은 결점과 약점이 있었으나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 요한의 제자들은 그에게 와서 모든 사람이 새 교사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불평을 말하였으나, 요한은 자기와 메시아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밝히 이해하였는지 또는 자기가 먼저 그 길을 예비한 그리스도를 얼마나 즐거이 환영하였는지 보여 주었다. …

믿음으로 구주를 쳐다본 요한은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더욱 더 높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케 하려고 힘썼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은 다만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이제 그는 모든 사람의 눈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자기는 잠잠하며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로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부르심에 신실한 자는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킨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과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외쳐야 할 임무를 깨달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7.11.28.

우리에게까지 비취고 있는 빛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막 1:9-11).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분 위에 임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7). 여호와와 보좌로부터 밝은 영광의 빛줄기가 열려 있는 하늘 문을 통하여 흘러 나왔다. 이 빛은 우리들 위에도 비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증을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신바 된 모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보증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 예수께 빚지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중재를 받는 자들로서 더 깊이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은 백성들 앞에 그리스도의 봉사를 거짓 빛으로 제시함으로 남녀들을 속이고 있으며 예수를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행동에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올바른 빛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상속자가 됨을 최대의 특권으로 간주해야 하며 또한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되고 극기의 길보다 어떤 다른 길을 기어 올라갈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들은 책망을 회피하고 희생을 비켜간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둑이요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자원하여 반대의 폭풍을 담대하게 부딪쳐 나가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조류에 표류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다. …

이제 우리 각 자에게 질문이 있다. 그대는 죄와 저주의 어두운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 집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그대의 발을 사닥다리에 굳게 서게 하여 위로 올라가라고 탄원하는 바이다. 그대의 죄를 버리고 그대의 품성의 결함들을 정복하라. 그대의 전 노력을 경주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 매달리라. 우리 각 자는 승리할 수 있다. … 악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품안에 있는 자들을 연약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땅에 매력을 두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손을 힘 있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섬기는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영문시조, 1884.7.31.

시련을 당함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예수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강한 원수와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들어가셨다. 이는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에서 구출하시기 위하심이셨다. 오직 그분만이 시험의 길을 밟고 굶주림과 야심이냐 죽음보다도 더 강한 극기를 행사해야 하셨다. -성경 메아리, 1892.11.15.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시련들을 알고 계시며 그의 시험들을 알고 계시다. 그는 우리의 성정을 취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는 우셨으며 슬픔의 사람이셨으며 불행을 알고 계셨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땅에 사셨으며 한 인간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치물이 되셨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며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며 그는 저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행 17:31)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는 실제로 시련을 당하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가 여러 형태의 시험을 저항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모본을 주셨다. 우리를 위해 충만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므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성경 메아리, 1892. 11.1.

인간은 거룩한 능력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시험의 광야에서 원수와 투쟁하심으로 그에게 모본을 보여 주신 것처럼, 단호하고 인내성 있게 사단을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의 의지를 거스려서 사단의 책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는 없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되더라도 거절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의 인간적인 힘을 사용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 심령 속에 이기심을 품어서는 안 되며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성경 메아리, 1893.1.1.

식욕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2, 3).

식욕이란 문제에서 광야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큰 시련은 인생에게 극기의 모범을 남겨주는데 있었다. 이 오랜 금식은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탐닉하고 있는 쫓겨난 일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준다. -건강 개혁자, 1878.9.1.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극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으셨으나 모든 시험들을 참아 내셨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반박하셨으며 그 말씀은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제한되었던 음식을 마다하고 육식을 먹도록 해달라고 강요할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모세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이 말씀과 그분 자신의 모본을 통해서 일시적인 음식을 위한 굶주림이 인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재난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다. -리뷰 앤 헤럴드, 1874.8.18.

인간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한 유혹 가운데 하나는 식욕이다. 마음과 신체와는 신비하고 놀라운 관계가 있다. 그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신체의 힘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 곧 살아 있는 기계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첫번째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신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마음을 소홀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몸과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식욕에 탐닉하는 것은 사악한 감각적 방종이다. ...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 쇠약을 가져오고 감각 기관들을 마비시킴으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폭식에 사로잡혀 이 방종이 도덕적 힘을 왜곡시킬 것을 아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을 위하여, 또한 식욕의 힘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6주를 금식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인류를 지배하는 식욕의 방종이 강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얼마나 강력해야 할 것인가. -건강 개혁자, 1875.8.1.

참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 4:5, 6).

식욕에 대한 첫 번째 시험에 있어서 사단은 주님의 당면한 주위 환경과 굶주림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하심을 의심케 하는 암시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첫 시험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가 노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 보이신 믿음과 완전한 신뢰심을 미끼로 하여 주님께에서 참람된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데 있었다. …

참람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심을 보이는 품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이 과멸에 이르게 되었다. 사단은 아침의 감언이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기만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단은 가장 극심한 시련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님의 믿음과 신뢰함에 있어서 광야에서 취하신 그리스도의 태도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 때에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주님의 전적인 의존심을 또 한번 밝히고 주님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믿음을 또 다시 자기에게 증거해 보이라고 강요하였다. …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그분의 성실성에 동요함이 없으며 하늘 아버지의 약속된 돌보심에 대하여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는 비록 원수의 손에 맡겨진 바 되고 지극히 어려운 난관과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하늘 아버지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불필요한 일에 시험삼아 이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셨다. …

우리 구세주께서는 여기서 얻은 승리로써 인간의 유일한 안전은 모든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확고한 신념과 견실한 신뢰심을 갖는 것임을 인간에게 보임으로써 완전한 모본을 남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을 위험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위기를 자초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주체님께 바라는 생각을 거부하셨다. 이러한 행위는 그분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하는 것이 될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고한 신임에 대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는 것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었다. - 리뷰 앤 헤럴드, 1874.8.18.

세상에 대한 사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8, 9).

사단은 처음과 두 번째의 시험에서 자신의 근본 목적이나 근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 궁전에서 내려온 거룩한 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세 번째 시험에서는 자기 자신의 위장을 완전히 벗어버린다. 그는 가장 매력적인 광경으로 세상 왕국의 전경(全景)을 그리스도 앞에 공개해 보여 주었으며 자신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마지막 시험은 세 가지 시험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것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슬프고 역경과 투쟁의 생애가 되어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미끼로 하여 주님의 성실성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매수하려고 하였다. … 사단은 이 세상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임금이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꼭대기로 끌고 가서 오랫동안 자신의 통치 밑에 있던 세상의 모든 왕국의 전경을 그리스도의 앞에 전개하여 보여 주었으며 그 모든 왕국들을 하나의 큰 선물처럼 주님께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고통과 위기를 맞보지 않고 세상의 왕국들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단은 자기의 홀과 통치권을 내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찬성하심으로 이 세상의 정당한 주인자가 되실 것이었다. 그날에 사단이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바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상관(上官)의 경의만을 표하면 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눈은 한 순간 자기 앞에 펼쳐진 영광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즉시로 눈길을 돌리셨으며 황홀한 장관(壯觀)을 외면하셨다. 주님께서는 유혹자와 희롱함으로 자신의 확고한 성실성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셨다. 사단이 경의를 표해 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마침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분은 더 참을 길이 없었고 신성을 모독하는 사단의 역설을 그 이상 더 허용할 수 없었으며 그분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조차 허락지 않으셨다. …

“사단아 물러가라”는 그리스도의 철회 명령은 주님께에서 처음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계셨다는 증거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시도해 본 모든 기만적인 술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 리뷰 앤 헤럴드, 1874.9.1.

말씀은 어떻게 전해졌는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요 1:35-37).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으며 그분과 친숙해 지기를 원하고 그분 가정에서 교훈을 받고 싶다고 고백했다. 이 두 제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단순하면서도 실천적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심령은 전에 결코 이처럼 격동되지 못했다.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귀중한 교훈들을 들어야 한다고 열망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시몬을 찾으러 갔으며 그는 확신있게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 이튿날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셨다.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믿고 그에게 그렇게도 매력을 주셨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났다. -예언의 신 2권, 64.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들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실례이다. 빌립은 이런 방법으로 그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빛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만일 그대가 한 영혼에게 빛을 주었다면 그대는 백명에게 빛을 전한 것이 되며 이는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이렇게 하여 빛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은혜의 시간을 이기적인 오락에 사용하거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만일 내가 이런 은혜를 모르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영존하시는 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리뷰 앤 헤럴드, 1889.4.30.

우리가 어떤 반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심지어 영혼들이 하늘에서 온 진리에서 돌아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널리 반포하여 정직한 영혼들이 듣고, 보고, 스스로 깨닫게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의 사업은 빌립이 했던 것처럼 “와 보라”고 외치는 것이다. -교회증언 6권, 38.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요 1:40-42).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지나치시고, 배움이 없는 어부들과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셔야 하였다. 이 사람들은 랍비들에게 공부하러 다녀본 일도 없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그 자리에도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산헤드린 의원이 되어본 적도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사상으로 속박되어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분은 바로 이 사람들을 취하여 쓰시려고 교육하셨다. 그는 그들을 그의 왕국의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로 만드실 수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영적 사물을 계시하실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식의 수탁자들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기독교의 원칙들을 수용할 만한 여지가 전연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을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진리의 사슬은 자신의 무지를 실감하면서 크신 교사께 가까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고리씩 한 고리씩 주어졌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의 새 교훈의 술을 담을 새 부대들을 택하셨고, 어부들과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 아직 그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계시한 것이었다. 그의 계획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고, 강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아야 하였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다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도 말아야 하며,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 오지도 말아야 하였다. ...

성령께서는 자랑하지 않는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아를 버림으로 된 빈 곳을 채울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6.6.2.

혼인 잔치에서의 이적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향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요 2:7, 9, 10).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첫 이적을 베푸신 때 한 군데도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에 안전한 음료를 제공하셨는데 그것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취하게 하는 술잔을 그 입술이나 제자들의 입술에 대지 않으셨다. 팔레스타인에는 술고래들이 흔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각 시대를 내려다보시면서 그 시대에 따라 포도주를 사용하실 것을 아시고 이 혼인 잔치에서 올바른 실례를 남기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셨으며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통치자들만이 포도주로 인한 당혹함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포도주가 널리 사용되면서 손님을 접대할 때는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보기를 갈망하신 바로 그 사업은 성취되었다. 제자들의 믿음은 확정되었다. 이 이적은 그들의 주께서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확신시키는 증거를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께서는 향아리에 있는 물에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는 단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은 단번에 포도송이로부터 나온 신선한 포도즙이 되었다. 오직 며칠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굶주림을 채우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는 일을 거절하셨다. 그는 굶주림으로 연약해 지시고 여위게 되셨으며 정신적 고뇌로 여위고 수척하여 지시면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러나 혼인 잔치가 열렸을 때에 주께서는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셨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사랑은 순화되고 정화되며 품위 있고 고상하여진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이 거룩한 본질과 연합하고 하늘을 향하여 자라도록 훈련되기 전에는 결코 그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 곧 행복한 가정을 보기를 원하신다. -성경 메아리, 1899.9.4.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요 2:13-16).

성전의 더러움과 깨끗함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 존재했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일삼고 내적 정결을 외적 과시로 대신하고자 하는 동일한 정신이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에 저주가 되고 있다. 자칭 하나님의 경배자들 가운데 더럽히는 문둥병처럼 번지고 있다. 신령한 것들이 세상의 비천한 차원에까지 끌려 내려오고, 악덕이 덕인 것처럼, 의가 범죄처럼 다루어지고 있다. 세속적인 사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섞여 있으며 대제사장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해 강탈과 사악한 추측이 행해지고 있다. -예언의 신 2권, 123.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의 죄로부터 하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계시며 우리는 도덕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서 땅에서 주님과 일치하여 일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일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감미로운 감화가 우리 생애에 역사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은혜와 평강과 힘이 분쟁과 연약함을 대신할 것이며 낙담과 슬픔을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현세의 사물이 아닌 영원한 사물들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에 종사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한 능력을 전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결합하여 역사하는 하늘의 권능에 가까이 이끌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우리 영혼들을 충실한 창조주이신 그분께 위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도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정신적 영적 능력은 증가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을 받을 것이며 사도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벧전 1:8)라고 언급한 말씀과 같은 복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0.2.11.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성령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7, 8).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실 때에 바람을 사용하셨다. 바람은 나무 가지들 가운데나 잎과 꽃들 사이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마음은 실제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다. 그 감화는 능력이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만일 모든 악한 것에서 정결하게 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마음을 소유하면서 재생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생애를 변화시키며 악한 생각들은 추방되고 악한 행위들이 사라지며 사랑과 평강과 겸손이 분노와 질투와 분쟁을 대신한다.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생명을 창조한다. …

하늘나라에 적합할 수 있기 전에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해 져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불경한 거래와 착취로 더러워진 자들을 신성한 경내로부터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막 착수하셨다. 예수의 임재로부터 그 날 도망친 자들은 성전의 신성한 봉사에 연결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적합하게 될 자는 아무도 없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참으로 유대민족을 더럽히고 그 종교적인 의식들을 모독하는 악들을 깊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유전과 무용한 형식들이 참된 경건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들은 이런 자라나는 악들을 저지하는데 무력했다. …

백성들의 큰 필요는 도덕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더럽히는 죄들을 제거하고 참된 지식과 진정한 경건의 회복이었다.

성전의 정결은 영생을 확보하여야 할 각 사람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사업을 설명한다. 예수께서는 참을성 있게 니고데모에게 구속의 경륜을 설명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빛을 보여주고 성령으로 거듭난 각 사람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에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이다. -예언의 신 2권, 128-130.

빛에 대한 책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7, 18).

만일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빛이 우리에게 와 있을 때 우리는 그 빛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예수의 사업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며 그러나 만일 빛이 하늘에서 교회에 주어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진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듣고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절한 것과 똑같은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오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수난과 죽음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자원해서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방도가 없다. 그들이 확신을 갖지 않도록 진리로부터 그들의 눈을 가리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데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받고 그것을 거절한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람이란 한번도 받은 일이 없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가 한번도 받은 일이 없는 빛으로 인하여 그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기별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기를 거부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고의로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증거하는 바를 완고하게 거절한 사람들로 간주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3.4.25.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우리를 파멸시킬 행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가들과 개인들을 취급하시는 것을 엄숙히 숙고하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하늘에서 보내주신 모든 빛의 광선과 경고와 책망과 자비의 증거들을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의 오래참으심을 경솔하게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라. -리뷰 앤 헤럴드, 1893.5.2.

침례 요한의 태도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 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27, 28, 30).

요한의 생애는 그의 사명의 성공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가 경험한 기쁨을 제외하고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것은 슬픔과 극기의 생애였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한 그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듣도록 허락되거나 그분에 의해 나타났던 능력을 목격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요한의 목소리는 광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의 생애는 고독했다. 군중들은 놀라운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었다. 그는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았다. 그는 죄를 책망했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한 길을 예비했다. -리뷰 앤 헤럴드, 1873.3.4.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한 남녀들이어서 비록 사람들이 저들이 전하는 교리들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저들을 존경하게 되고 광신주의적 사상이나 무모한 정신이나 성급한 기질이 없는 인물들로 여기게 할 것이다. … 그대들이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대들 자신을 숨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대들의 마음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가 되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92.4.26.

우리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가장 큰 죄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감수성이 둔한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신뢰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만으로 차 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몇 가지 증거들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보증으로서 그 축복을 취할 것이며, 비난이 올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축복하셨으며 나는 이 비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상태에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성의 모본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만약 우리가 재단된 옷을 갖는다면 우리는 옷의 원본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상이나 계획을 포기하고 원본에 따라 행할 것이다. … 우리는 자부심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요한이 외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9.8.27.

생수의 근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묘사된다. …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신 엄숙한 진리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상태는 이 진리로 감명을 받거나 이 진리를 반대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는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며 주께서 그들 생애 속에 나타나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요구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6.10.19.

인류의 대다수가 이 세상 사물에 몰두하고 있으며 거룩한 진리는 그들 심령 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은 영혼의 굶주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동경하고 있으며 땅에서 나지 않은 평강과 안식을 그리워하고 있다. 위압하는 의식과 눈부신 과시, 음악과 축제 가운데 옛날 성전에서 경배하던 자들도 이와 같았으며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것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을 기쁘게 했던 동일한 기별이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 그분의 은혜로운 초청은 우리 시대에 까지 들려오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생수의 근원에서 “내게 와서 마시라”는 초청이 잃어버린바 된 세상에 흘러오고 있다. -리뷰 앤 헤럴드, 1882.2.28.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스러운 생애와 품성의 귀를 열었다. “필요 없다, 무의미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다. -영문시조, 1876.6.15.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펴내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다. … 그분께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한 보화로 화제를 돌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생수까지 제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일할 방법을 알려 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해 주어야 한다. -영문시조, 1904.3.23.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요 4:47-50).

신하가 예수께 와서 그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께서는 그를 만나서 사람들의 불신을 책망하셨다. … [신하는]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섭섭하게 생각했다. 초조함을 갖고 좀더 지체하면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요 4:49)라고 말했다. 드디어 예수께서는 그의 요청을 영광스럽게 받아드리셨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에 맡기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참지 못하고 스스로 단념하며 그들 자신의 본성적인 마음의 느낌을 허락하여 왔는가? 그들은 “말씀으로 한 마디만 하시면 그의 아들을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그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낙담하게 하시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으셨다. 그는 부모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효과를 가지도록 의도하셨던 것이다. -영문시조, 1876.6.15.

구속주의 말씀의 능력은 섬광처럼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비쳐 나가며 어린아이는 고침을 받는다. 신하는 예수의 임재를 고집하지 않으므로 그의 믿음을 보여준다. …

그리스도께서 이 신하 속에 가진 믿음을 얼마나 크게 증언하셨던가! 그는 그 자신 어떤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의 아들의 생명을 위해 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큰 능력이 그의 영혼에 잠재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몸은 물론 영혼을 위한 의사로서 인정했다. …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는 신하의 절대적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히 11:1 인용].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약속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고하게 무장된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믿는 이를 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들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창문을 의의 태양을 향하여 연다. 그는 그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지식을 갖는다. -청년 지도자, 1902.12.4.

중풍병으로부터 구원받음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요 5:5, 8, 9).

[이 사람의] 질병은 대체로 그 사람 자신의 악습의 결과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친구도 없이 홀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졌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불행한 세월을 지내왔다. -치료봉사, 81, 82.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주님, 만일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신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은 의심을 품음으로써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즉시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가 걸어가려고 작정하자 걷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는 낫게 되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 우리의 심령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약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저들의 속절없는 상태를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 줄 영적 생명을 갈망하며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그들은 절망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부르짖는다(욘 7:24).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아야 한다. …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건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전히 나왔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한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 주시고자 갈망하신다. -치료봉사, 84.

인간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38년 동안 내 뜻에 복종치 않은 나의 손발을 사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추론이 시종일관 나타날 것이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의심없이 그는 유일한 기회를 붙잡았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힘과 기운이 솟아올라서 그는 온전하게 되었다. -영문시조, 1882.6.8.

핍박받는 자를 위로함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눅 7:23).

헤롯은 예리하고 강력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헤롯에게 그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헤롯은 어떤 희생도 원치 않았다. 그는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고 부인의 영향을 받아 요한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잡아 투옥시켰다. -초기문집, 154.

헤롯의 음탕하고 불법적인 결혼에 항거하여 두려움 없이 증언했기 때문에 투옥된 침례 요한에게 낙담이 찾아왔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는 자기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 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니까?”(눅 7:19, 킹제임스 역)하라 하였다. -원고모음 15권, 261.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별자들이 온 용건을 알아보시고 그분의 능력의 강력한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분의 신성의 증거를 주셨다. -영문시조, 1896.9.1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순탄하고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으나 그리스도인 길을 홀로 여행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요 15:26-16:1]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으며 시련이 왔을 때 그들은 낙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했다.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책망할 경향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만을 나타낼 위험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적인 주장에 관하여 주신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계명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기로 결심한 자들이 교회들로부터 출회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8.4.19.

구주의 임재의 능력

“시몬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한 후 그렇게 하였더니 굉장한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더라.”(눅 5:5, 6, 킹제임스 역).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각 사람이 그의 영광을 주목한다면 이처럼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어부들이 기적적으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어부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성공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구주의 내재하시는 임재는 영혼을 낚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필요하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우리가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실망에 실망을 거듭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며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였다. 그들은 애를 태우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부들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며 얻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명하신 대로 그물을 바다 속의 더 깊은 데로 내렸으며 그 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던가! 그들은 그렇게 많이 잡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갈릴리의 어부들의 불신은 사라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시던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들은 응할 준비가 되었으며 그들은 인간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배웠다.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으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놀라움과 감사, 구세주를 기쁨으로 따르며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모든 것들은 영혼 구원사업에 있어서 우리를 위한 실물교훈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오랜 세월 충실하게 수고할지라도 좋은 기대를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환영하자마자 그는 영혼 구원에 우리와 함께 또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일치하게 수고하기로 선택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하셨다. ...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이웃에게 흘러들어가는 통로이다.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구주를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3.8.27.

세심한 자비심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눅 5:12, 13).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케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독기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하여졌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더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사 1:5, 6)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누구든지 그의 발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2, 3)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아무리 죄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늘의 귀중한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사람도 결코 지나쳐 버리지 않으셨다. -영문 시조, 1905.10.25.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신령한 사명에 대한 증거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왜곡과 허위를 통해 그분을 비난할 것이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축복을 베푸신 이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셨다. ... 예수께서 비밀로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함으로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고 손상을 입게 만드는 것은 거룩한 신임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리뷰 앤 헤럴드, 1893.8.22.

거듭난 세리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눅 5:27, 28).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태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는 유대인이었으나 세리가 되자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싫어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아래서 계속적으로 울분을 품고 있었다. 경멸을 당하며 이방 민족이 그들에게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독립된 국가로서의 그들의 권세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들 자신의 백성들 중 한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종사하므로 그의 탁월한 민족으로서의 명예를 망각하였을 때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이처럼 로마 정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돕는 자들은 배신자로 간주되었다.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세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자존심을 명들게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세리의 업무를 압박과 강탈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의 편견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표면을 직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예수님의 신성의 눈은 마태의 마음속에서 그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셨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으며 예수께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령은 구세주께 대한 경외심으로 충만했으나 이 위대하신 교사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의 제자로서 택하시리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재정상의 손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이나 의심도 없이 마태는 일어나서 그의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얼마 안 되는 제자들과 동일한 관심을 갖고 그들과 연합했다. 그는 돈이 별리는 사업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빈궁과 노고와 바꾸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그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인자하심을 배우며 그분의 놀라운 사업을 바라보고 힘드는 수고에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했다.

마태는 부자였으나 그의 주님을 위하여 즐겨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가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랐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기를 열망했다. -예언의 신 2권, 186-188.

1월 28일(화)

교만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과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1, 32).

마태는 겸손하게 그에게 주신 영예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자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구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친구들은 사업 친구, 재미를 보러 다닐 때의 친구, 죄를 지을 때의 친구들이었다. 예수께서 것처럼 죄 많고 가치없는 그를 부르셨다면 그분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친구들을 틀림없이 받으실 것이라고 마태는 생각하였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의 축복을 나누어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리관들과 바리새인들같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축복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 주기를 원하였다. ...

예수님은 그런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의 앞에 항상 있는 목적은 마음을 그에게로 이끄는 대화를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다. ...

교만한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을 보라!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유대 나라가 지키는 금식을 존중할 수가 없으셨다. 그들은 교만과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으로 금식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사단은 타락 이후로 참조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 날도 그와 똑같은 길을 따른다. 그들은 치명상을 입히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한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정신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통탄할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예수님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신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참조하였다. 마음을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었다. ...

가난한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들의 도움의 필요를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 교훈과 도움을 받아들였다. -영문시조, 1898.6.23.

1월 29일(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나타냄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비애와 재난의 매우 깊숙한 곳을 아시려고 오셨다. 그는 그분 자신을 빈궁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눌린 자들이 있는 자리에 두시고 가장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열렬한 관심을 갖고 일하셨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셨다! 주께서는 그들이 그분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극기와 희생정신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그들에게 불어넣으실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그는 그분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특권을 주심으로 인간들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진리의 씨를 뿌리는 일에 그분과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봉사보다 더 큰 것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만일 그대가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처럼 자만의 정신을 가진다면, 만일 그대가 자기 의의 옷으로 자신을 감싼다면, 그대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주며 그대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대보다 먼저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불평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부터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모든 장벽은 무너진다. 그는 그 더러운 성격대로 죄를 보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행사한다. ...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사랑할 것이며 자신을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바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할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할 것이다. 그는 죄인이 있는 곳에 갈 것이다. 그는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재치와 재능을 그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은 누구나 인간을 높이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의 봉사를 위한 일에 그림자를 던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본성의 각 부분과 우리의 존재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영문시조, 1898.6.23.

1월 30일(목)

안식일의 주인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눅 6:5).

[예수께서는] …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율법의 범법자로 간주되실 것임을 아셨다. 바리새인들이 크게 분 내어 이런 행동을 포착하고 백성들로 그분을 반대하도록 세도를 부릴 것을 주께서는 잘 아셨다. 그는 이런 자비의 사업을 이용해서 다수의 마음에 미칠 강한 논증으로서 유대인들의 속박과 부당한 요구에 그들의 모든 생애를 붙들어 두도록 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런 일을 아시고 안식일을 장애물로 삼아 미신의 무분별한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 사랑과 자비심이 모든 날에 합법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에 방해받지 않으셨다. …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으시기를 바라셨으며 또한 안식일에 자비의 행동이 합법적임을 제자들에게 감명시키기를 바라셨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주께서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허무셨으며 넷째계명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안식일을 높이셨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제한들을 쓸어버리셨다. 주께 불평하는 자들은 안식일을 더럽히면서 쓸데없는 의식과 예식으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하신 모든 행동들은 그 날을 존귀하게 하셨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며 동일한 일을 행하는 그분의 제자들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트집잡는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비록 그들은 외면상으로는 다른 목적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폐하셨다고 계속 주장한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목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예수께서는 생명을 구하시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반면에 그들은 심한 중오심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행하신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는 것보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았는가? 하나님의 성일에 인자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보다 마음에 살의를 품는 것이 더 의로웠는가. -영문시조, 1876.11.30.

1월 31일(금)

주께서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 8:20).

구주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으셨다. 그의 생애에는 이기심의 흔적이 추호도 없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 계시면서도 그는 그 어느 곳도 그분의 집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다. -청년 지도자, 1907.9.10.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부자들의 환심을 사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낮은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 그분께서는 사회의 인위적 차별을 전혀 무시하셨다. 그분은 귀족계급의 사람들, 부자들, 재간 있는 사람들, 학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셨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왕이셨지마는 그분의 제자들을 학식 있는 법률가, 통치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학식과 지위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유전과 미신적 관습에 사로잡혀 있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어부들을 택하셨다. 그분은 세리들과 죄인들로 더불어 함께 잡수시고 일반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과 같이 비천해지고 세속화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그들에게 바른 원칙을 제시하고 그들을 속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의 거짓 표준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세상이 빈곤에 대하여 찍어놓은 낙인을 제거해 버리고자 그분의 위치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두셨다. 그분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하심으로 빈곤으로부터 조소의 비난을 영원히 벗겨 버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의 심령을 예수께 연 신앙적인 경험을 가진 자들은 교만을 버려야 하며 그들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되도록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부 사업, 10.

생명을 주는 저장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마 5:1, 2).

산상보훈은 위대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여 어린 아이까지라도 오해하지 않고 배울 수 있게 한다. 팔복을 교훈하신 산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서 계셨던 영적 수준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하신 것이며 주님께서 천국의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 교육기초, 407, 408.

이 산상 설교를 통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 경험을 위한 발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흑암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산 바 된 영혼이 품성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야 한다. 말씀이 들려온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영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산 바 된 것이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며 우리는 이 영혼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왔다.” 만일 영혼이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지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원수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며 인간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주의 도움을 보다 더욱 크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며 그대의 뜻이 하나님의 뜻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그대의 방법과 그대의 의복과 그대의 정신 속에서 그 사실을 나타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경계선은 뚜렷하다는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결정적이지만 항상 분별되지는 않고 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그대가 그들 변두리에 있는 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대의 신앙고백으로 감화를 받지 못할 것이며 이는 그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한 영혼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는 별이 없는 면류관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구원을 받는다면 영광의 궁정에는 어떤 영혼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도구인 그대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이 알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구하지 않는가. -성경 메아리, 1892.6.15.

우리의 부족을 느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마 5:3).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너무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진리로 거듭난 자들 가운데 뚜렷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발전의 단계에 도달한 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주저앉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서 있으며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운데 자라기를 멈추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교는 부단한 발전을 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영원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을 아는 가운데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끌어당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느껴야 한다. 우리의 영혼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열렬한 갈망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멸망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신뢰의 필요를 느끼면서 우리는 두 손을 잡고 “나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모아서 신성의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도 우리 영혼을 위하여 대속물을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생기게 할 만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완전하게 할 수도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더 좋은 생애를 위한 모든 갈망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그것은 주께서 그분 자신에게로 그대를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이며 그대는 그분의 이끄시는 능력에 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대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되어야 하며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면 그는 그대를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것이며 그 주인의 사용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은 영혼은 영의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그를 만드실 그 자신보다 더 높은 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할 것이다. -성경 메아리, 1892.6.15.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진리의 성화케 하는 능력으로 쾌활한 정신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농담과 희롱의 말, 경박한 짓,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 등은 옳지 못한 일이다.

신앙생애를 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그대가 죄를 참으로 회개할 때 그대가 죄가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인식하므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생애가 마치는 동안 죄가 있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대의 양심을 더럽힐 것인가? 그대는 악을 항상 행할 작정인가? 주께서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빛에 일치하여 생애하는데 실패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가 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에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청년 지도자, 1894.2.15.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그들의 잃어버린 멸망의 상태를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들의 죄와 잘못을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 만일 예수께서 그대에게 애정의 중심이 되시고 그대의 애정이 자리 잡는 한 분이 되신다면 그대는 그대의 마음 속에 이 사랑을 감추어두고 결코 밖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인가? 아니다. 그대는 그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며 그대는 그의 영을 붙잡고 그의 모본을 모방할 것이다. -성경 메아리, 1892.6.1.

유일한 상속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부족함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경시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냄으로 이런 부류에 속할 것이다. … 그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므로 그의 심령은 녹아질 것이다. 그는 그의 가난함을 느끼며 그의 연약함에 관심을 모으는 대신에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구하는데 이는 그의 의의 옷이 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의 언어는 “자신은 더 적게, 그리고 그분을 더 많이”라고 외친다. 그는 예수님을 갈망한다. 그는 그 자신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며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피의 무한한 값으로 그를 위하여 값을 치루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안다. 그는 그가 행한 선행이 모두 자신이 섞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그가 달성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어떤 공로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가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면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메아리, 1892.5.15.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할 때 성벽은 그 감화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그의 지력은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며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의지를 모든 신성한 교훈에 굴복시킨다. 진정한 온유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완화시키고 주입적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주시는 한 은사이며,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본성적으로 심술궂거나 조급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의 은사를 마음에 품으면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를 슬프게 한, 그분을 닮지 아니한 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 자제할 것이다. 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약 1:19)는 영감적 교훈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거룩한 모범에 동화되어 가게 된다. -리뷰 앤 헤럴드, 1881.1.18.

무엇이 우리를 주리고 목마르게 하는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먹이는 음식의 정도에 비례한다. 우리는 세상과 그 습관과 그 행실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더욱더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애를 의의 표준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입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인성이 신성을 붙들 수 있도록 하셨으며 의에 주리고 목마름을 통하여 신성한 분과 친밀히 연합하게 된다. 인간 대리자의 특권은 매우 크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만족할 수 없으며 우리를 무한한 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랑 없이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과 함께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였으며 우리를 그분께 이끌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다. ...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대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대는 그대 속에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을 마시고 있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 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에 주린 심령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성화와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그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영문 시조, 1895.9.5.

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지만 세상은 쾌락과 유행과 세상의 박수갈채에 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며, 하늘의 충만함이 주어질 통로를 따라 그들의 소망을 향하게 하는 자들은 얼마나 적은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고 그분과 동역자가 되려고 왜 결심하지 않는가? 예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합함과 우리의 냉담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에 어떤 핑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연합함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석회반죽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구원을 찾아야 한다. -성경 메아리, 1892.6.15.

하늘이 미소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일

“금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금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케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34-40).

수고하는 자가 되는 일, 자아부정의 노력을 요구하는 선행을 인내로 계속하는 일은 하늘이 미소를 보내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충실한 일은 열렬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최상의 예배보다도 더 가납된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기도와 권고와 도움을 주는 말은 빈번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값싼 열매이다. 그러나 선행 즉 곤핍한 자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좋은 나무에서 저절로 자라는 참된 열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원칙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이며 그것은 자비를 행하고 친절을 하며 가련한 자, 빈곤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일이다. 사람의 심령이 낙담하고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을 동정할 때 그의 손이 벗은 자를 보고 옷을 입힐 때 나그네가 거실의 의자에 환영함을 받을 때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오며 하늘에서 응답의 열차가 출발한다. 모든 행동, 공의와 자비와 박애의 모든 행위는 하늘에서 음악을 만든다. ... 궁핍하거나 고통당하는 자에 대한 모든 자비로운 행위는 마치 예수께 한 것처럼 된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돕고 괴로워하고 눌린 자를 동정하며 고아의 친구가 되는 자들은 예수께 더욱 친밀한 친구가 되게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1.8.16.

마음의 청결함은 영적 시야를 밝게 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우리의 생활과 품성이 순결함과, 모든 이론을 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으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분별하거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영혼의 능력을 낮게 끌고 퇴화시킨 것은 죄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과 진리로 회복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비워야 한다. 영혼은 모든 허황됨과 교만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며, 그것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의 보좌에 앉으셔야 한다. -설교와 대화 1권, 271.

생각이나 행실이 불순한 것은 영적 시야를 어둡게 하며 영혼은 심사숙고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품성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세상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의 이해력은 의가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는 쪼든 행위에 의해 어두워지며 그러므로 불의보다 나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의 품성은 율법을 통하여 나타난다. -영문시조, 1895.10.3.

만일 우리 심령이 깨끗하다면 우리의 말은 깨끗할 것이며 우리의 행동은 거룩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손이 정결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없으며 거룩한 분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품성이 변화되리라는 약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주께 의로운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더러운 모든 것을 내쫓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을 품는다면 우리는 받으실만한 탄원을 드릴 수 없으며 우리의 간구는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 ... 우리는 사단을 우리의 내적 보좌에 앉게 하도록 허락하는 한 우리의 도덕적 분위기는 더러움으로 채워질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의 어떤 구석진 곳에 머무르실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온 마음이 그분께 굴복된 영혼 속에만 거하실 것이며 그때에 품성은 거룩한 형상을 따라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다.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고야 말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욱 큰 빛과 능력을 모으게 될 것이며 우리는 더욱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96.1.9.

나는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음이 그대 속에도 있다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행할 것이며 그대가 그분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며 산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자양분을 끌어당길 것이며 그대는 하나의 가지로서 원줄기에서처럼 동일한 열매를 생산할 것이다. 모든 의의 원수는 화평케 하는 자와는 반대되는 행동 속으로 그대를 이끌려고 준비하고 있다. 분열과 다툼을 사랑하고 다툼을 선동하는 사단은 그대를 사단 그 자신과 연결시키는 한 지체로서 행동하도록 그대를 유혹할 것이다. 사단은 어떤 형제자매들 속에 있는 잘못들을 생각하도록 그대를 인도할 것이며 그 잘못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그대에게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의 형제에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마 18:15)고 말씀하신다. 그대는 어느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인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솔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서로를 대하도록 하는 것을 싫어한다. 당사자에게만 가서 말하는 것보다는 형제들의 허물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인다. 그러나 그대의 참소를 들어야 할 자는 바로 그 당사자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명백한 빛에서 떠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될 특권을 상실하고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했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의 시련들을 없이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마 5:9 인용됨.] 하나님과 일치하여 일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누어 주는 은혜는 영혼에게 생명이 흐르는 샘물이 되며 화평케 하는 자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사단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며 다툼을 일으키며 영혼들을 낙담케 하고 그들을 사단의 전투에 몰고 가는가! 그들은 인자한 말과 위로의 말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도왔어야 한다. 사단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다. 그는 시기와 질투와 악담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현재 품고 있는 정신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중요하며 이것들은 장래의 생애에 대한 우리의 적합성이나 부적합성을 증거할 것이다. -영문시조, 1895.10.10.

핍박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임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10-12).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칠고 사나운 정신이 아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인은 평강을 갈망하는 자들이며 원칙을 버리지 않는 한 모든 값을 치루더라도 평강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비록 고통과 비난과 괴로움과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고수하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첫째 자리로 놓는 자들, 그들은 인간의 정책을 허락하지 않으며 어떤 보상의 약속이나 명예의 제공이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에 개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사업을 저버리도록 설득될 수 없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은 그들의 기억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며, 원수가 흉수처럼 밀려 와도 주님의 영이 그대를 위하여 그에 대항하는 깃발을 들어올릴 것이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소중함을 깨우치실 것이다.

[마 5:12 인용됨.] 이 말씀들은 충만하고 광대하며 깊은 의미가 있다. 그대는 의기소침하거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며 불평하거나 한탄으로 충만해서도 안 된다. 때와 용기와 믿음은 모두 소중한 것이며 낙담과 비탄에 빠지기에는 너무 소중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다. 온 하늘은 주목하고 있으며 그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모호한 신뢰는 우리로 은혜의 보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신령한 말씀의 각 페이지에는 의의 태양 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힘을 주고 핍박 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준다. 하나님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계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비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신자는 그리스도 곧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 진리는 새로운 빛으로 보여질 것이며 영혼은 그리스도의 명백한 임재로서 즐거워할 것이다. -영문시조, 1895.10.10.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 5:13, 14).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은 순결한 처음 사랑, 예수님의 사랑, 불로 연단한 금이다. 이것이 신앙의 체험에서 떠나가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예수께서 계시므로 있게 된 빛과 햇빛도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종교가 무슨 가치가 있었는가? 그것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된다. 그 결과로 분주한 활동, 곧 그리스도 없는 열성을 통하여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따르게 된다. 형제나 자매 속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는 데는 놀랄을 정도로 예리한 지각력이 있으며 이런 것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계명의 준수자들과 공언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며 율법은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고 말할 수 있다. -성경 메아리, 1892.3.1.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행은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들의 후덕한 삶과 이타적인 행동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의를 바라게 한다. 그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에 반하게 되며, 하나님은 존귀케 되시며, 그분의 이름은 영화롭게 된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됨으로 그분은 수치를 당하고 그분의 사업은 비탄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세상과 친하게 지낸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며, 그들의 분리되고 거룩하며, 특별한 품성을 열렬히 고수하는 데 있다. 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는 조건에 맞추려 하지 않는가? 만일 그들이 이것을 한다면 그들은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을 깨닫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성결, 이보다 부족하지 않은 것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원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가져다준다. 이 성결이 없이는 인간의 마음은 이기적이며, 죄가 많고, 악할 뿐이다. 성결은 성결한 자로 하여금 선한 일에 있어서 과실을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는 선행을 하는 일에 지지치 않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꿈꾸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하늘의 왕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분의 보좌에 올리실 때에 승진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5.5.5.

그리스도의 사업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 18).

사람들로 율법을 범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그들을 순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성경 메아리, 1887.1.1.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심지어는 설교단에서조차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율법주의 말을 듣지 않는가? 사람들이 마음대로 율법을 범하여도 자유로운 속박의 멍에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묘사되고 있지 않은가?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은근히 말해주었으며 오늘날 동일한 거짓이 세상에 만연하고 심지어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도 이런 말이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면서 성화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거짓된 치명적인 징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죄인에게 “네가 형통 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주께서는 죄를 그분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시지만 그들은 죄에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죄를 섬기는 분으로 만든다. 이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낙원에서 행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가르침과 모본으로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들은 죄인에게, 범법자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므로 더 높이고 더 거룩한 상태로 올라 갈 것이라고 말한다. 땅을 통하여 들려오는 교훈은 “불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얼마나 다른가?. -영문시조, 1890.4.28.

하나님은 각 사람을 성소의 저울로 달아보신다. 한쪽 저울판에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율법이 놓여 있어서 계속적이고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만일 다른 쪽에 부주의하고 이기심이나 혹은 반역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측량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뵈었다”(단 5:17)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그는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으며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다. 불순종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보증이 주어진다. -리뷰 앤 헤럴드, 1901.6.4.

율법을 크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7, 28).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며 율법의 빛으로 그는 어두움의 은밀한 생각이나 행동의 악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생애에서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빛으로 사물을 비추어준다. 그는 우리의 혀로 무엇을 말하며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하며 우리의 외적인 생애로 무엇을 과시하는지를 알며 아주 적은 일이라도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준다. 율법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살핀다. 그것은 은밀히 행한 인간의 눈에는 숨겨진 질투, 시기, 도적질, 살인 악독, 야심,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악을 주시하여 본다. 인간은 얼마나 자주 그 마음 속에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두운 일들을 숨기고 있는 인간들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숨겨진 악을 기록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율법은 인간에게 지킬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들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그들 자신이 대범하게 행하고 있으며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행하는 자들인 것처럼 자기 의로 만족하고 있다. 그들의 사업은 그들의 불완전한 품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는 자로 쓰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들과 협력할 수 없으시다.

품성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속에 품고 있는 정신이나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 더욱 시험을 받고 증명이 된다. 인간들은 외적인 것을 자랑하고 풍채를 중요시하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며 부패와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들의 일들은 거룩하지 않으며 더럽다. 그들의 기도와 행위는 그리스도의 의가 결핍되어 있으며 향기로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며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몹시 싫어하신다. 눈이 열린 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영혼의 완전한 모습과 속사람의 완전한 사진을 제시해 주며 이 사진은 죄인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이 죄 아래 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영문시조, 1890.11.3.

전에 결코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의 성경을 상고하라. 그대가 그대의 신앙 생애 속에서 더욱 높고 더욱 거룩한 위치에 까지 오르지 않는 한 그대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예비하지 못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8.12.11.

우상들을 포기하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 5:29, 30).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모실 수 없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올라와야 한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단은 각 영혼의 가는 길에 논쟁을 일으키려고 그의 활동적인 대리자들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협박을 당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신다. 그대들의 길을 강행하고 곧바로 나아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눅 13:24). 소중히 여기는, 품고 있는 우상들은 버려져야 하며 방종하고 있는 죄들은 그대의 오른 눈을 빼버리거나 오른팔을 베어 버리는 것과 같을 것이다. 번민하라! 그대들의 통과를 반대하는 바로 지옥의 군사들을 뚫고 정면 돌파하라.

오! 우리는 언어야 할 하늘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각 영혼에 열렬히 인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영혼의 모든 힘은 그들의 통과를 강행하고 힘으로 천국을 움켜쥐도록 분발해야 한다. 사단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은 지치지 않고 끈질긴데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 우리의 타락을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릴 시간이 없으며 지금은 더 좋은 환경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업을 더 쉽게 행할 수 있으면 하고 변명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조차 그들이 쫓겨난 변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모든 비상사태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다면 거친 곳들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분의 경험으로 영혼을 위하여 환경을 만드실 것이다. 그는 문 가까이 오셔서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숨도록 하실 것이며 궁핍한 영혼은 인간이나 환경을 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원고모음 12권, 335, 336.

가장 안전한 은행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0, 21).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둔다는 것은 우리의 재물을 무아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의 청지기들이며 그것들은 타락한 욕망이나 이기적인 방종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온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둔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산을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인류를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그렇게 사용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결코 실패함이 없는 은행에 우리의 것으로 기록해 놓으실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재산은 그리스도인 전투에서 전진을 방해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헌신한 사람이 투자할 최선의 곳을 분별하고 그의 재산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을 땅에 붙들어 맨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된다. 재산이 증가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안전과 만족을 키운다. 종교적인 의무는 경시하게 된다. 속박 아래 매이게 되고 인간은 자만에 빠지게 된다. 모든 영적 사물은 어두워지고 마음의 눈은 땅을 향하게 된다. 세속적인 경향은 성격과 행동 양편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영적 기능들은 마비된다. ...

아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眞價)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動力)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성경 메아리, 1889.2.15.

어느 주인을 택할 것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세상이 생각과 원칙과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 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으시다. 세상의 조류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심취되어 있는 조류에 따라 흐르도록 영혼을 지배한다. 악한 천사, 진리의 대적이며 거짓의 아버지인 사단은 인류를 타락시키는 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그의 이득을 취하고 모든 재물이 인간의 구원과 그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계획과 야심이 마음을 몰두하게 하며 생각과 애정에서 하늘과 그리스도를 내쫓는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힘과 아름다움을 알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그들은 세상에 매달려 있다. 진리는 세상의 명예와 그들의 사업상 위치와 그들의 일용한 양식의 희생을 요구하며 그들은 머뭇거리고 실패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숙고하지 않는다. …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롬 6:16).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떠나서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셨다. 그는 슬픔의 사람, 불행을 아는 분이셨다. 그분의 궁핍을 통하여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하늘 편에서의 이 위대한 사랑이 나타났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빈약한 보화들을 포기하기를 싫어하며 곧 지나가 버린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잠시 우리는 세상의 이득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를 제시하신다. -성경 메아리, 1889.2.15.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려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76.9.21.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지는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의 때를 위하여 힘과 용기를 축적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76.9.21.

황금률의 능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마 7:12).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정, 상호간의 교제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는 예리하고도 엄중하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이웃 사이에 행하는 우리의 태도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다. 친절할 말, 주의 깊은 행동, 참된 예의와 관대한 정신은 그리스도인 신앙에 대한 유리한 감화를 언제나 끼칠 것이다. “종교가 그들을 더 낮게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아방종하고 세속적이며 상거래에 있어서 예민한 자들이다”라는 말을 우리 중 누구에게서도 증거되지 않게 하라.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헤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의 길에 방해물을 놓는 자들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우리 구세주의 황금률과 동일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들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세상에 보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영문시조, 1882.1.12.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교의 참 표준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기만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산상보훈, 137.

인간에게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정한 폭군이며 이 권세가 생애를 지배하는 동안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없다. 황금률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생애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며 인성이 신성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경건이나 존엄은 말이나 공언이나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는 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동일한 교리를 믿고 있는가를 묻지 않고 우리 이웃 사람들의 필요를 속히 알아 지체 없이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들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요구되는 것처럼 그들의 믿는 바가 어떠한 필요가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돕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들에 충성하는 자들은 복음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영문시조, 1892.7.18.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을 가르침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4, 15, 20).

각 시대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원수들이었다. 이웃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면서 진리의 용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왜곡시켰다. 그들이 나타낸 정신, 그들이 행한 일은 그들의 신앙의 성격을 증거했다.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서 거짓을 행하였고 이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며 항상 논쟁을 위해 준비할 것이며 진리를 방해할 것이다. 그들은 성경을 거짓 해석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고 그 진리들을 듣지만 영적 식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이며 그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릇 인도될 것이다. …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유 12).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서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허위를 예언하는 자들이 많은 데 그들의 부드러운 말이나 온당한 말들 때문에 단순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기는 쉬운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맺고 있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가?이다. 열매는 나무의 성격을 증거한다.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형벌이 위선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면서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정금처럼 나타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이다. 위선자는 복음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으나 주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다. -영문시조, 1892.7.18.

참된 믿음의 모본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 8:8).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 주시기를 갈망한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의 집까지 오시게 하기에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은 대단히 컸기 때문에 그는 그분께, 다만 말씀으로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마 8:10-13).

여기서 예수님은 의심과 대조되게 믿음을 높이셨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임을 보이셨다. 그것은 큰 빛을 배척하도록 이끌 것이며 그들의 정죄와 멸망을 초래할 것이었다. -영문시조, 1886.12.30.

백부장이 생각한 어떤 종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가?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고 말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주변 사방에 있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천사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도록 명하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는 주의 말씀이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었다! …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 백성들 외에도 많이 있다. 거의 2년동안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빛과 진리를 받도록 거듭거듭 권해 왔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중한 진리가 왔는지 아니왔는지 그리고 파악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붙들려 있다. 그들은 구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고 있다. … 우리는 일어나서 불신의 이런 입장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사단을 우리 발로 밟지 않을 것인가? 나는 그대들에게 일어나서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탄원하는 바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0.3.11.

우리의 말을 경계함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5-37).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단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가 악한 역측의 말을 발하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저희가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의심의 말을 발하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한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급기야 성령의 역사를 곧잘 비평하고 거절한다. -시대의 소망, 323.

노유를 막론하고 그들 앞에는 싸워야 할 투쟁 곧 전쟁이 있다. 그들은 한순간도 줄아서서는 안 된다. 교활한 원수는 그들을 미혹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깨어 있다. 현대 진리를 믿는 신자들은 그들의 원수처럼 깨어 있어야 하고, 사단을 저항하는 일에 지혜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인가? 그들이 이 싸움에서 참고 견딜 것인가? 그들이 모든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조심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면에서 부인을 당하고 계신다. 우리는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함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나 농담을 함으로, 무익한 말을 함으로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재치나 지혜를 별로 나타내지 않는다. ... 경계의 부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고 고백한다. ...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원수들과의 우정을 지속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의견에 의하여 지도받기를 원해야 하는가? 완전히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과 세상의 사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기서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교회증언 1권, 408.

영혼을 방치하는 것을 경계함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마 12:43-45).

오늘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사단의 지배를 한동안 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은 영혼을 지배하던 악령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러나 비유 중에 나오는 돌밭으로 비유된 청중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악한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가 되며, 그는 그분의 권위 외의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불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하여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3, 324.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마 12:50).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어머니나 형제들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을 결코 나타내지 않으셨으나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런 행동들이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친척들로부터 결정적인 반대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주께서는 아셨다. …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은 효성스런 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나와 하늘 가족 식구들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연합의 띠이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나에게 붙들어 매는 신성한 동아리에 들어올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9.9.26.

만일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하늘에서 오신 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협력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서 얼마나 든든함을 얻었을 것인가! 그들의 불신은 예수의 지상 생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 쓰디 쓴 질고의 잔의 일부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에 불붙은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민감하게 느끼셨고 가정에서의 적개심이 예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니 이는 예수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또한 그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을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가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그분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가 저희의 권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판단하고 만일 예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을 말한다면 예수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

그들의 짧은 측량 줄로는 예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명을 측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시험당하시는 예수를 동정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거칠고 인식 부족한 말은 그들이 예수의 신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신성이 인성과 혼합되었다는 것을 식별하지 못한 증거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주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보았으나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저들의 생각과 말로 예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예수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 받지 못하였다. -시대의 소망, 325, 326.

약속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평강과 안식을 그대에게서 빼앗아 가는 그대의 두려움과 불신을 주께서는 없이 하실 것이나 그대는 반드시 주께 나아와야 하며 그분께 그대의 심령의 은밀한 비애를 말씀드려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1.8.2.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분께로 오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초청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재물의 노예로 만드는 이기심과 탐욕의 괴로운 멍에를 바꾸라고 초청하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

그분은 그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자아 부정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멍에, 곧 그분의 멍에를 메기를 원하신다. 이 짐은 가볍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휴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이기적 만족을 위하여 돈을 모으는 계획에 온 정신을 몰두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운 이기심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우신 자아 부정과 무아적 자선의 짐을 지는 중에 누리는 평안과 쉼을 경험하지 못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74.8.25.

그리스도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는 죄와 죄악의 짐들보다 얼마나 더 가벼우며, 계속적으로 찌르고 양심을 번거롭게 했던 것보다 얼마나 가벼운가! 더럽혀진 양심은 견디기에 힘들었다. 이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얼마나 쉬운가!

곤란한 것은 온유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겸손은 그곳에 없다.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에 곧 바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이름에서 악을 내던져 버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땅의 권세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온 하늘이 우리를 초청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땅의 거품들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킨다. 우리는 우리의 애정을 고상하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우리는 기진맥진한 포도나무 넝쿨처럼 가치 없는 그루터기에 덩굴손처럼 매달려 있다. 그대의 덩굴손들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얹히게 하라. -리뷰 앤 헤럴드, 1870.4.19.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막 4:39).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요 5:30)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 뿐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 때에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거나 바다거나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그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걱정을 다스릴 수 없다. …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336.

귀신들을 정복함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 하신대”(막 5:18, 19).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공중의 권세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엄청난 증가하는 죄의 역사를 통하여 악의 공적에 거대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또한 보다 강력한 능력이 사단을 대적하여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요 12:31)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대항할 힘을 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바야흐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희생으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남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생각으로 심령에 용기를 얻으셨다. —리뷰 앤 헤럴드, 1904.11.24.

이기심은 그의 이름이 군대라고 일컫는 귀신이며 각 시대를 통하여 이 귀신은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으며 극기의 정신을 세상에서 추방시켰다. 그 권세를 통하여 교회는 능력을 가져야 할 때에 연약하게 되었다. …

잃어버린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하며 얼마나 충만한가! 그는 그분 자신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그분의 관심과 인간들의 관심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논증을 인간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 메아리, 1894.2.12.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보내신 첫 선교사는 그분이 귀신들의 군대를 내쫓으신 그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기를 간청했으나 예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막 5:19)고 하셨다. 이 사람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기 고향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큰 일 행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의 경험을 말해 주었다. —영문시조, 1891.10.12.

살아 있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눅 8:48).

무심한 방법으로 신앙적 문제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진정한 심령의 갈급성과 산 믿음 없이 영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주변으로 가까이 밀려간 방황하는 군중은 그 접촉에서 생명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불쌍하고 고통받는 여인이 큰 필요를 느끼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치료의 능력을 느꼈다. 그의 접촉은 믿음의 접촉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접촉을 아시고, 마지막 때까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을 거기서 주시고자 작정하셨다. 그분께서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런 질문에 놀라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라고 대답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여자를 주목하셨다. 그 여자에게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주체넘은 일을 했던가?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는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고백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부드럽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 5:30, 31, 34)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무관심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의 행사가 없는 기도와 설교는 허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접촉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지혜의 보고를 열어 준다. 그리하여 진흙으로 된 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의 이적들을 이루신다.

이러한 살아 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크게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소유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세련되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종들이 온유와 사랑과 함께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들이 어떤 사업을 이루겠는가! 어떤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겠는가. -리뷰 앤 헤럴드, 1887.12.13.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여인을 움직였던 믿음은 산 믿음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련이나 고통을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함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시조, 1889.9.30.

70인의 사명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등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1, 2).

예수님의 사랑의 큰 심령은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으며 그분은 큰 범위로 이를 행하셨다. 그는 여행하는 동안 군중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는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 그러나 그는 선교적인 노력을 위해 열려진 수많은 일터들을 보셨다. 열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곳들이 많았으며 그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일꾼들이 일할 선교지들이 있었다. ...

주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 열두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지침을 주셨으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돈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가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눅 12:33)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들 재산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지도 않았다. 주께서는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재능들을 그들이 사용하도록 하셨으며 돈과 마음의 여러 재능들을 사용하거나 흑암에 앓은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하는데 영향을 줄 재능들을 사용하게 하셨다. -영문시조, 1894.10.10.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야 하였고 크신 의사의 오심을 위한 일터를 준비해야 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전파해야 했고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면서 그분의 사업과 사명을 공표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을 각성시켜야 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인간의 방법에 찬사를 보내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논쟁을 위한 길을 열어 놓을 형식적인 찬사에도 말려들지 않았다. ...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의 접대를 받도록 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겸손을 위장하지도 않았으며 백성들과 섞임으로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아야 했고 그들을 초청해야 할 자들과 함께 가야 했으며 인종이나 계급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었다.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의 청중들의 민족성이나 성격이 어떠한든 각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영문시조, 1896.6.25.

시간의 급박함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 하시니라”(마 8:21, 22).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도 더욱 가치가 있으며 우리와 영혼 구원 사업에 세속적인 사물이 끼어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사업의 중요성을 이제 겨우 깨달은 데 불과하다. ...

심령 속에서 진리를 위하느냐, 대적하느냐는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에, 나는 그대가 일터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간청하는 바이다. 심지어 한 사람이 집안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고 말씀하셨다. ...

그리스도께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말씀이었다. 그는 우리가 영원한 사물을 첫째로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사업에 우리 자신을 관련시키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명시키기를 원하셨다. 세속적인 일의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일단 입었으면 사소한 핑계로 그 갑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곤란이나 가정의 복잡한 문제로 사업에서 손을 떼어서는 안 되도록 끈질긴 에너지와 인내력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로 우리의 관심을 허용한다면 원수는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를 일터에서 떠나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바로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별을 주셨으며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수행할 초소에서 있지 않는 한 충실한 파숫군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일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을 굳건하게 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원수에게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진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SDA 선교의 역사적 고찰, 127, 128.

핍박아래서 증인이 됨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막 13:11).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바로 그 시간에 기억에 떠오르도록 빛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기회의 귀중한 순간들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며 그대들의 마음과 그대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진리의 보석들로 채우는 일에 게을리 한다면, 또한 만일 그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하고 시련의 때에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맛보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그대의 기억 속에 기억나게 하신다고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매일 나누지 않은 애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

그대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바로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를 그대들과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하며 누구도 그대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대들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야 하며 또한 바울이 취했던 것처럼 그대들의 의뢰한 자를 그대들이 알고 또한 그대들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의탁하신 것을 지키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대들이 바로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대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너무 이야기들이 많고 기도는 너무 적다.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것 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말해지며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들이 말해지는데 그러나 우리의 지식들은 너무도 피상적인 것들이다. 우리 구주께 대한 더욱 겸손한 신뢰와 의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박하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져서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시련이 닥쳐오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련이 닥쳐올 때 능히 견디며 핍박을 받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그 날에 힘을 잃게 될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90.4.15.

쉬지 말고 기도함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눅 11:9, 10).

우리가 마땅히 신뢰해야 할 만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되어 있다.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아닌가? 만일 우리가 산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약속들을 붙잡는다면 축복은 적당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에 의해 그분께서 바라시는 방법으로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

사단은 그대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며 그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대들을 시험하려고 노력할지 모른다. 그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의 얼굴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13)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만일 우리가 죄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로 병들어 있으며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추천할 어떤 선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와 자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잊어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치료하시고 힘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본체를 붙잡아야 한다. ...

우리가 흑암과 낙담 중에 있을 때 산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때가 곧 믿음을 행사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 때가 사단을 저항할 기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승리를 얻도록 허락하겠는가? 아니다. 그때가 바로 그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이며 또한 사단은 그 때에 힘을 다하여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를 쫓아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만일 그가 힘의 근원에서 그대를 떠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대는 흑암과 죄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다. 불신보다 더 큰 죄는 없다.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타나게 될 우려가 있다. 그 때에 입술에는 자갈과 고삐를 물려야 한다. -SDA 선교의 역사적 고찰, 132.

주 안에서 휴식함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말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막 6:30, 31).

세계는 일찍이 겪어 본 적이 없는 긴장 속으로 돌입하고 있다. 오락에, 돈 모으는 일에, 권력 다툼에, 생존 경쟁에 몸과 마음과 혼을 몰두케 하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이 광란하는 세력의 진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 46:10) ...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자각, 내재하는 쉼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 쉼은 모든 자기 의가 추방될 때 발견되며 온전한 순종이 그리스도께 바쳐지며 그분이 원하시는 자가 되고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서 발견된다. 이 조건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쉼을 발견할 수 없다.

먼지나고 뜨거운 생애의 큰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늘에서 쉬도록 하자. 여기서 우리는 투쟁을 위한 힘을 얻는다. 여기서 우리는 수고와 걱정을 감소시키는 법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말하고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조용한 신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평화와 안식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분의 그늘 아래 앉아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교체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체로 얻는 참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한다. 빠른 발걸음으로 급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가서 잠깐 동안 그 거룩한 경내에서 쉬는 듯하지만 권고를 받고자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거룩한 교사와 함께 머물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짐을 그대로 진 채 일터로 돌아간다.

이런 일꾼은 힘의 비결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최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없다. 그들은 지·덕·체의 능력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고상해져야 한다. 이 힘을 얻을 때, 그들에게서는 신선한 생명력이 소생될 것이다. ...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준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들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쉼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대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영문 시조, 1904.7.6.

그리스도를 더욱 소유함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2-34).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오락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고려되었던 이런 휴일들은 단순히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깨우치는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 피곤하실 때 예수께서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에서 휴식할 장소를 구하셨으나 사람들은 하늘의 만나를 맞보고 큰 무리를 지어 그에게 나왔다. 인간적인 모든 비애와 고통과 비탄 가운데서 그들은 피난처를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휴식할 장소가 없으셨다. 그분의 마음은 동정으로 격동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까닭이었으며 그분의 크신 사랑의 심령은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그분은 하늘나라에 관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빛과 활력으로 충만한 귀중한 진리를 제시하셨다. 그러나 이 진리가 영혼의 내적 성전으로 옮겨져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의 심령속에 거하시는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안에 거하신다면 그대들은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더 많이 가지고 자신을 더욱 더 적게 가질 것이다. 우리 심령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거하시야 하며 그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하심으로 육적인 욕망은 억제될 것이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 10:4, 5).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속에서 명백하게 분리되지 않음을 애석하게 느낀다.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고 계시며 하늘의 지적존재자들이 실망하고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은 실망을 당하기 때문이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대들은 그대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그분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없다. -영문시조, 1892.6.6.

모든 사람을 위한 떡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요 6:9, 10).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시는 가운데 적은 떡 조각을 취하셨다. 그 떡은 예수님의 한 식구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너무 적은 것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청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하셨다. 양식은 예수의 수중에서 증가하였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내민 제자들의 손들은 결코 비지 않았다. 이 작은 저장소는 모든 사람을 먹이기에 충분하였다. 사람들의 요구가 공급된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들였으며,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다 함께 하늘이 공급하신 그 귀중한 양식을 먹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공급 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시조, 1902.1.22.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천사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봉사하도록 나타날 것이다. 이 하늘 천사들은 모든 우리 주위에 있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돌아오는 자들은 다른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데 도구들이 될 것이다.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개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주위에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노력하라. ...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좌우편에 유혹을 당할 가련한 인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는 말씀의 교훈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으며 그 가르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하늘 천사들은 설교자와 청중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나타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9.4.8.

물위를 걸어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마 14:28, 29).

열렬한 베드로는 기쁨으로 자신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는 주께서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대담하게도 거품 이는 바다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결코 전에 없이 그는 주님을 사랑했다. 그는 주님을 얼싸안고 경배하기를 갈망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폭풍이는 물위로 걸어가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요구를 기꺼이 수락하셨으나 베드로는 사나운 물결 위로 한 발자국 내 디뎠을 때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만일 그들이 그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유연한 물결 위로 걷는 것이 쉬운 일 이라고 감탄하면서 동료들이 있는 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을 예수께로부터 돌이켰을 때 그의 눈은 그를 삼킬 듯한 물결로 경악했고 바다의 포효 소리는 그의 귀를 덮었으며 그의 머리는 바닷물에 잠겼고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멈추려 했다. 그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예수께로 자기 팔을 뻗치면서 소리 질렀다. “주여 나를 구원 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동정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그분에게로 뻗쳐진 떨리는 손을 붙잡으시고 그분 곁으로 끌어 올리셨다. 그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움직이시어 손을 내어 뻗치시고 친절하신 얼굴과 구원하시기에 강하신 팔이 그를 붙드셨다. 베드로는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께 매달리고 예수께서는 온유하게 그를 책망하신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떨고 있는 제자는 이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뻐하는 동료들이 탄 배에 안전하게 앉히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순하고 조용했으며 그 동료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이는 그가 우쭐함과 불신으로 그의 생명을 거의 잃을 뻔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의 경탄을 받기 위하여 자기 눈을 예수께로부터 돌이켰을 때에 안내자를 잃고 의심과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는 세상의 폭풍의 소용돌이 속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언의 신 2권, 269, 270.

인내를 키움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67, 68).

하나님께서서는 누가 걸길로 돌아서서 미혹케 하는 영에 귀를 기울일지를 아신다. 주께서는 품성에 결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이런 결점들을 허락함으로 그 결함들이 그들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압도당하게 될 것임을 아신다. ...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시험하는 진리를 소개하시고 그들이 시험을 견디면 영혼을 신성의 참여자로 만드실 믿음을 나타내게 될 것이었으나 그 시험은 또한 그들의 믿음이 헛된 공연임이 알려질 때 그들은 원수의 제안으로 그들의 주님께 대항하여 돌아서게 했다. 고통, 극기는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어려웠으며 그들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시련과 유혹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며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서만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위로부터 피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살피는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빈다.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발산되는 모든 빛줄기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거룩한 교훈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들을 묵상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 의의 열매가 그들의 생애에 나타났을 것이며 날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더 강하고 또한 더 강하게 더욱 더 성장했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되며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피와 튼튼한 근육과 강건한 건강을 가진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동일하며 우리가 명상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취하고 그분의 지침을 실생활에 실천한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며 생애와 품성에서 더욱 더 주와 같이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1.4.14.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
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마 15:9).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을 제시하며 많은 경우에 이런 거짓된 교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탈취하게 된다. 주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사람들의 계명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분의 율법만이 인지되도록 고안하셨다. 주께서는 순결하고 불변의 진리가 세상에서 선포되도록 고안하셨다. 극기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의 자녀들을 특징지어야 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재현해야 했으며 세상 앞에 영원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부의 통치하에 오게 될 발전이 있어야 함을 알리는 정신과 특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 임금에게서 기인된 법률보다 더 높은 율법에 순종해야 했으며 제왕들이 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에 순복해야 했다. -리뷰 앤 헤럴드, 1893.12.19.

하늘 법정에 처음으로 유혹을 가지고 온 자는 땅의 교회의 평강과 번영에 대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그의 말들을 들을 자들에게 사단은 교회의 권위를 거칠고 동정이 결핍된 것으로 소개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타락시키는 감화로부터 신도들을 보호하기를 힘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지존자의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것이 하늘에서의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는 이 목적에 실패하고 하늘 법정에서 쫓겨났으며 그때 이후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을 다룸에 있어서 독재적이고 가혹하다는 것을 믿도록 남녀들의 심령 안에 주입시키려고 노력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에 치욕을 돌릴 수 있는 요소들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두신 직임들 가운데 그분은 교회의 각 신도들이 행할 일들을 주시고 그분의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당기도록 격려하신다. 그러나 주님의 길로부터 떠나서 유혹자와 그를 동정하는 자들 편에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행정적으로 질책을 하는데 공정하고 의로우며 충실하게 행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8.3.19.

“그냥 두어라”(마 15:14)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들의 거짓된 교리들을 고치도록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과 논쟁 없이 지내는 것을 책망하고 계셨다. -영문시조, 1900.1.3.

이방 여인의 큰 믿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
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
7:28).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셨던 것이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감화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개로서의 취급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구주께서는 만족히 여기셨다. 그는 자기에 대한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신 것이다. 그 여인에 대한 그분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제자들을 위한 교훈을 마치셨다. 공허함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 사귀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기의 기도가 가납되었음을 기뻐하였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 행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자들 앞에 놓인 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눈을 더 활짝 열게 하였다. 그들은 유대 바깥에서 일할 유용한 넓은 일터를 보았다. -영문시조, 1897.9.9.

유일한 표적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눅 11:29, 30).

점성가처럼 그분 자신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은 아니었다. 그분의 사업은 속절없이 재난과 불행을 당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었다.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

악한 헤롯조차도 그리스도의 사업의 위대하심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확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마귀의 역사라고 돌렸다. 성령께서는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보내셨으나 그들은 성령의 감화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증거가 아무리 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이 받지 않을 것임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는 하늘 회의에서 계획된 사업, 곧 병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는 일을 건실하게 추진하셨다. 그는 이 사업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그분의 사명에 대한 충분한 증거들을 갖고 계심을 아셨으며 그의 심령은 빛과 진리에 대한 광택하고 단호한 저항을 아시고 슬퍼하셨다. …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죄로부터 배워야 한다. 오늘날 그들의 입장을 불신의 편에 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마치 의심하는 것이 미덕이고 위대한 마음의 표적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만일 이런 의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었다.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입장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3, 4). 성령의 작용은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는 어리석게 보이나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며 정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년 지도자, 1901.3.21.

선입관이 없는 판단력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5, 16).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 오직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412.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와 같다고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결길로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새롭고도 항상 일어나기 쉬운 질문과 문제들을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는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기 위해 기다린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이 숙고하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비록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들은 원수에게 너무 오랫동안 굴복하여 왔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 졌으며 그들은 미숙하고 어린아이처럼 항상 병약하며 다른 사람들의 빛을 따라 행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 살며 다른 사람들의 느낌에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한다. 그들은 개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한다. 이들이 우왕좌왕하는 품성을 깨닫고 고치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날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마귀를 대항할 힘을 소유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적이 접근하고 있는지 친구가 접근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기 위하여 누군가가 그들 곁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신령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사물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현명하지 못하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자기 스스로 경험을 갖는 일에 남을 의뢰해도 좋은 사람은 없다. 천사는 말하였다. … 그리스도인 경험과 싸움에는 고상한 자립이 필요하다. -리뷰 앤 헤럴드, 1886.8.10.

마지막 시대의 하늘의 영광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1, 2).

예수께서 축축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제자들은 눈을 뜨자 산을 두루 비취는 충만한 영광을 보았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은 저희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하였다. … 예수 옆에는 예수와 친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늘 거민이 있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모세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 중에는 다른 한 사람에게 밖에는 허용되지 아니한 귀한 특권, 다시는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아니하는 귀한 특권을 받았던 엘리야였다.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러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예언의 신 2권, 328, 329.

변형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있을 것임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었는데 이 약속은 변화 산에서 성취되었다. 이는 그들이 거기서 축소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다. -예언의 신 2권, 336.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요 13:31)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는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무서운 고난을 위하여 힘을 얻으셨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신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투쟁의 때, 곧 “야곱의 환난”에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주로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영문시조, 1879.11.27.

겨자씨 믿음의 결과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 17:20).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대자를 만나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들이 얼마나 조심성 있게, 또한 얼마나 겸손하게 그 싸움에 임해야 할 것인가! 마음을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이따금 얼마 동안 금식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을 주는 그분의 귀중한 진리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어, 오류가 진정한 결함 그대로 드러나고 오류의 옹호자들이 완전히 참패당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진리를 위하여 싸우고 진리의 반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류와 흑암을 세상에 존속시키고 오류를 가지고 진리를 가리워 버리고자 작정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로서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류가 육신적 마음에 가장 잘 맞을 때는, 그것을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오류와 흑암을 좋아하고, 진리에 의하여 개혁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 진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서 있는 자들이 토론에 비중을 크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약한 상태에서 반대자들을 만날 것 같으면, 진리의 편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은 없고 결정적인 손실만이 있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624, 625.

금식과 열렬한 기도, 깊은 반성과 준엄한 자기 성찰을 통해 영혼을 벌거벗겨 놓으라. 한 가지 행위라도 빠뜨리지 말고 면밀히 조사하라. 자아가 죽고,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상태로 겸손한 간구를 올려라. 그대가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께서 그대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대는 높임을 받으리라. …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펼치는 것과 참된 고결함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특징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행위를 날날이 살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증언 2권, 158.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막 9:35).

우리의 고귀한 신앙을 공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속히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세상과는 다르고 또 구별되어야 하며, 선한 일에 열심인,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특색들 중에 그들의 겸비와 온유함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게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겸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헛되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평안이 여기 있다.

명예와 지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동등되거나 아마도 더 높고자 하는 야심을 갖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신실한 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자아 확대의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때에도 사도들 가운데 다름을 일으켰다. …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분의 왕국의 명예와 영광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셨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겸비하게 시중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자요 종으로 일하셨듯이, 종이 되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7.1.18.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겸을 얻으리니”(마 11:29)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뭘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매일 겸손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성을 배양하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인가? 이런 정신없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질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나타내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들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크게 될 자들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5.5.14.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 23:11)고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셨다. 섬기는 자는 자신을 낮출 것이며 그렇게 행함으로 그는 주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높일 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2.11.4.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2-6).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 줄 마음의 변화였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후 그 어린아이를 자기 팔로 친절하게 안으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분의 나라는 세속적인 위엄이나 외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다. 이런 모든 구별이 예수의 발아래서는 잊혀진다.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가 계급이나 명성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모든 사람이 피로 사신바 된 영혼의 자격으로 서로를 대하며, 그들을 속량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의뢰한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을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능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로 사람들에게 그분의 인을 찍으신다. 영광의 주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을 만족히 여기신다. “주께서 또 주와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 18:35) 라고 다윗은 말하였다. -시대의 소망, 437.

목사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선천적인 교만하고 자존하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온순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들 자신의 견해와 세상의 격언이나 전통을 따르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님의 발앞에 앉게 될 것이며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을 것이다.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그들을 지도할 것이며 주님의 성령이 그들의 노력과 연합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사단의 대열에서 표류하고 있는 청년들이 생명의 임금의 깃발아래 있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영문시조, 1881.11.24.

각 사람에게 할 일이 있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막 9:38-40).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눅 9:49)고 말했을 때 나타낸 그 정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조직과 규율은 긴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성에서 떠나갈 매우 큰 위험이 오늘날 존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형식과 의식을 적게 의지하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다. 만일 생애와 품성이 모범적일 것 같으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어떤 역량을 가졌거나 일하게 하라. 비록 그들이 그대의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용기를 꺾기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아이들을 조용하게 해 달라고 그분께 요청했을 때 구주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눅 19:40)고 말씀하셨다.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활동 분야들이 있다. 각 사람은 그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에서 활동해야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을 따라 할 일을 주셨다. 더 큰 책임과 역량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가능성과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계층에 접근할 수 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 같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는 택한 그릇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장 비천한 일꾼에게 그들의 손을 얹고, “그대는 이 방향에서 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하지 않든지 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이여,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 제치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갑옷을 입고, 그 자신의 겸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나 해야 한다. 일을 하는 중에 그의 손을 강하게 하라. 지금은 바리새인의 정신이 지배할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기별은 전달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461, 462.

주의 뜻을 행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6, 17).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충분한 목적을 갖고 무슨 일에도든지 극기와 자기를 희생하고 일하는 자는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늘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온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의 통제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은 교리를 알 것이며 질문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두 견해 사이에서 주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즐겨 순복하며 그분이 모든 것을 구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그분의 뜻을 행하게 되며 다윗이 말한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고 언급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성과 양심이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일치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영혼 사이에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품성의 완전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6.7.7.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면서 생애함으로 주께 대한 확신은 날마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임을 깨달을 것이며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할 열렬한 갈망은 물론 그 즐거움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또한 습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지를 묻지 말아야 하며 빛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안락을 연구하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세속적인 관심이 우리의 순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교훈들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면밀히 연구할 것이다. 진리만이 그들을 안전하게 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5.8.25.

생수의 강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37-39).

생수의 샘물에서 자양분을 길어 올리는 종려나무가 사막 한 복판에서도 푸르고 싱싱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죄악의 광야에서 불안에 가득차서 곧 죽게 된 지친 영혼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할 수 있다. …

우리는 개별적으로 최대의 가치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불의가 성하고 또한 우리들이 불충실한 자들과 회의주의자들로써 둘러싸여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나 실제로는 죽은 자칭 그리스도인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찌라도 이 사실이 우리들 중 누구도 멸망의 조류에 휩쓸려가야만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거의 온 세계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까닭에 우리들은 확고하며 충성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영문시조, 1884.6.26.

영감의 말씀은 숙고하는 자들에게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시내와도 같을 것이다. …

그대의 성경을 가지고 그대 자신을 하늘 아버지 앞에 드리며 말하기를 무엇이 진리인지 나를 깨우치시고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이 그대의 영혼에게 진리로써 감동시켜 주실 것이다. -영문시조, 1893.2.6.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간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샘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 드려야 한다.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비의 시기인지 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완성시키는 늦은 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의지하는 일 등을 이루어 낼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7.3.2.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요 7:46).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관원들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고 부르짖었다. 그의 말씀은 평화를 위하여 굽주린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위안과 힘과 축복을 주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인내하신 분이었던가! 가난한 자와 고난 당하는 자와 눌린 자들에게 주신 그의 교훈에는 동정과 자비가 얼마나 충만해 있었던가!

유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랐고 무식한 자들은 항상 유익을 얻었는데 이는 그들의 깨우침에 호소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증들은 매일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사물들로부터 취하셨으므로 그 속에는 기이하고도 심오한 의미가 있었다.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의 백합화와 씨와 그리고 목자와 양! 이러한 사물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셨다. …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가장 단순한 말들을 사용하셨으며 그럼에도 그분의 말씀은 심오하고도 편견이 없이 듣는 자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그 말씀들이 그들의 지혜를 시험하는 말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유식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도 영적 사물들은 항상 단순한 말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사물에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언어는 최고의 웅변이다.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는 명백하고도 단순한 말로 전해져야 하며 이는 진리가 깨달아지고 심령 속에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허다한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분의 교훈들을 깨우치실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것처럼 위안과 기쁨을 주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충실한 목자가 그의 양을 알고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그는 각 사람을 둘러싸는 시련과 어려움을 아신다. …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달아 보셨다. 그는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하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멍에의 짐을 짊어지신다. 그는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으나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아신다. 아무 인간의 마음이 우리를 동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시며 주께서는 나를 보고 살라고 말씀하신다. -리뷰 앤 헤럴드, 1897.5.18.

죄 없는 분이 사하심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 8:7).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통하여 가장 괴로운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으며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셨다. 죄를 뉘우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든든한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 여인은 자아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죄 사함과 동정을 회복하였고 경배했다. 그 후 이 여인은 십자가 밑에서 슬픔에 싸여 서 있었으며 그녀의 주님의 얼굴에서 돌아가시는 고통을 보았고 더 비통한 울부짓음을 들었으며 그녀의 영혼은 다시 찢어지는 듯했다. 이는 이 희생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죄를 지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그녀의 책임이 큰 것임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은 구주의 옆구리를 찌른 격통은 그녀를 위한 것임을 느꼈으며 그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피는 그녀의 죄의 기록을 도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그분의 돌아가시는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는 그녀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느꼈다. …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이키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한다. …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여 처벌하는 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보다 더욱 죄가 많을 수가 있다. -예언의 신 2권, 352-354.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이 결길로 나아가간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는 주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위안과 희망의 말씀을 하셨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시대의 소망, 462.

이 세상을 밝게 함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보다는 다른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어두움은 사단에게 속한다. …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입술에서는 한 마디의 불평이나 고통과 시련 중에도 한 마디의 투덜대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빛 가운데 기뻐할 것이며 세상의 빛을 둘러싸고 있는 순수한 분위기를 맞볼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나오는 빛은 그들의 생애로부터 세상의 어두움 속으로 빛을 반사할 것이다. 빛을 주시는 분께서는 그들을 빛의 전달자들로 삼으실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마 5:14).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열렬한 믿음과 기도로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고귀한 빛을 모으고 있으며 어두움과 죄악이 견책을 받게 하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찬란한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는가? 그대들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인내심과 그분의 사랑을 그대들의 생애 속에 들여오고 있는가? 그대들의 빛은 분명하고 견실한 광선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들의 공언은 조소를 당할 것이다. 그대들의 영혼에 세속적인 것들을 굽어모으고 그래서 그대들의 빛이 희미해지고 모호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이 제거되도록 빛의 큰 근원되신 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왜 어두움에 처해 있는가? 왜 우울함을 말하고 있는가. -영문시조, 1891.9.28.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빛을 알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돌이켜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기심과 교만과 겉치레와 자기 의의 분위기가 그들 영혼을 감싸고 있으며 그들이 빛을 빛으로서 분별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떤 사람은 빛을 떠나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그들이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은 더욱 심하다. … 영광스럽게 주어졌던 빛은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실생애에 실천되지 못해 왔으며 많은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다. 참된 신자마다 하나님 앞에 이 엄숙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 자신의 뜻이나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는 헌신한 사역자들의 군대들을 보아야 한다. -영문시조, 1893.5.29.

우리 앞에 있는 목표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린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28).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충성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것도 결코 하지 않으셨다.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 앞에서,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입술로부터라면 모독죄가 되었을 말씀, 곧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요 8:29)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다. 3년 동안 날마다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을 따라 다니면서 그분의 품성에서 어떤 흠을 찾거나 노력했다. 사단은 그의 모든 악의 연합체를 동원하여 그분을 정복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그분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태평양 합회 기록, 1903.12.17

하늘의 빛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분은 불충성이나 반역이 결코 침입되지 않은 순결한 분위기인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의 즐거운 분향으로 가서야만 했고 거기에서 그분은 찬양과 사랑의 환호와 함께 영접 받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구원자를 필요로 한 것은 타락한 세계였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우리 세상에 소망과 구원의 기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만을 위한 생애를 살지 않으셨다. 그분 자신만을 편하고 즐겁게 할 방책을 도모하시지도 않으셨다. 유혹에 무릎 꿇으시기는 커녕 죄된 인간이 구원을 얻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처소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의 목숨을 주신 것이다. 그분의 사명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 인간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를 행하도록 그에게 요구하며 인간은 그리스도를 떠나 행하고 있다. ...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하도록 주어진 동일한 일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됨으로서 영광을 받게 되며 주께서는 그의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남김없이 다 하셨다.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그대로 부여하셨다.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바라보고 그분처럼 될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과업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8.2.15.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롬 8:31, 32).

여기에 만족과 평강과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참된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고 있는 자는 검소하고 편리하고 건전한 의복에 만족하며 자신의 습관들을 예수님의 모본에 일치하게 유용한 생애를 살기를 힘쓴다. 이런 사람은 가장 참된 행복과 복리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인위적인 생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같은 단순함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건강 개혁자, 1877.2.1.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며 복음의 자유를 말한다. 그들은 율법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가운데 살기를 계속하는 한, 죄인을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진리의 빛이 그의 마음에 비쳐 오고, 그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범죄의 범위를 깨닫는다면, 그는 자신의 길을 개혁할 것이며, 자신의 구주로부터 얻어진 힘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새롭고 깨끗한 생애를 이끌게 될 것이다. -영문시조, 1897.2.25.

자비와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풍성한 섭리가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왜 인간은 진리가 속박의 사슬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것은 마음이 아직 주의 선하심을 결코 맛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빛과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는 권고를 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알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주 예수께 간다. 그는 표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리뷰 앤 헤럴드, 1906.3.29.

그대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그대는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 그대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의 뜻에 충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대는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된다. 마음은 새로운 율법의 권위아래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율법이다. 인격 전체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된다. 심령은 변화된다. -배틀클릭 서신, 66.

진리는 결코 영혼을 속박하지 않는다. 영혼을 속박하게 하는 것은 진리에서 오류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유대를 갖게 되면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문시조, 1900.8.22.

자존하시는 창조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요 8:58).

그리스도께서는 선재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선재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신 때는 결코 없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 -영문시조, 1900.8.29.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계 5:11)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그분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그분의 뜻의 위대한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36.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되었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전체적(專制的)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 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간계(奸計)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위는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루스벨의 시기와 그릇된 설명, 그리스도와 동등하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지위를 발표할 필요가 생겼으나, 그리스도의 천사들 중에 루스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눈멀게 된 자들이 많았다. -부조와 선지자, 37, 38.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음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일을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거리이다. 진리를 아는 모든 교인들은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미구에 우리는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 교회는 일어나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 모든 교인은 교육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별을 전할 수 있다.

영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휘장은 바야흐로 걷히려 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안일에 몰두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해졌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가?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해 있는가? ... 그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고 있음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채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지나가는 매일은 우리를 종말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성령에 의하여 제자리에 박힌 못처럼 감명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내일이면 그들 중 어떤 영혼들은 우리가 다시는 결코 접촉할 수 없는 곳에 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행 동료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교회증언 9권, 26, 27.

마치 밤중에 도둑이 소리 없이 접근하듯이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줄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기를 주께 기원한다. 진리는 미구에 영광스럽게 승리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로 택하는 모든 자들도 진리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시간은 짧다. 미구에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현대 진리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서둘러야 한다. -교회증언 9권, 135.

믿음으로 단순한 수단에 의한 치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6, 7).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였다. -영문시조, 1893.10.23.

우리는 치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한다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기별을 전했다. 그러자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종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이 15년 간 연장될 것이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만 하시면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는 지시가 주어졌다(사 38:21) …

그리스도께서 어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7). 치료는 오직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간단한 자연의 기구를 이용하셨다. 비록 그분께서 약물치료에 대한 장려는 하지 않으셨지만 단순하고 자연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셨다.

우리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사별(死別)을 당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쓴 잔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잔을 우리 입술에 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면 치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조주께 새로운 의무가 지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열 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 무분별한 아홉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치료봉사, 232, 233.

우리가 소경이라면 고침을 받아야 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으니라”(요 9:39-41).

이성이 있는 자들이 참으로 진리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주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할 충분한 증거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마음으로 진리를 피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는 그들의 불신을 만족시키도록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는 결코 의심할 기회나 시기를 제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빛을 붙잡는다면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이며 그 빛은 의심들이 사라질 때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어두움을 택한다면 그들의 의심들과 진리에 대한 트집은 증가할 것이며 그들의 불신은 강해질 것이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빛은 그들에게 어두움이 될 것이며 그 어두움은 얼마나 심할 것인가!

그들에게 처음에 주어진 빛이 더욱 분명하고 더욱 충만했던 것처럼 만일 그들이 빛을 거절한다면 그 빛은 받기 전보다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유대나 백성도 꼭 이와 같았다. 이런 현상은 각 시대를 통하여 기독교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게 보배로서 주어진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진노의 날을 위해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끊임 없이 의심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의심들을 먹고 의심들을 즐기며 의심들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관심에 의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증거들과 다투는 자들과 불편하고 인기가 없다고 하여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빛은 흑암으로 변할 것이며 진리는 오류처럼 보이고 오류는 진리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

진리는 발전적이다. 마지막 큰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선지자들로부터 그들에게 비취고, 또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으로부터 그들에게 비취고 있는 축적된 빛을 따라 전진할 것이다. 얻을 기회가 결코 없었기 때문에 심판 날에 책망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하나님의 사자들이 펜이나 음성으로 제시한 진리, 그들이 백성들에게 공개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들, 마음의 어두운 방들에 침투한 빛이 거절된다면 그것들은 마지막 큰 날에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들이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6.1.5.

바로 그대를 위한 것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14, 27).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그분의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끌려 가기를 거절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예수께서는 또한 누가 그의 부르심을 즐겨 듣고 목자이신 그분의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 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은 단 하나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는 그들을 꼭 붙잡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

우리가 그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의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사랑하신다. 독자여, 예수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하늘 그 자체도 이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믿으라. -시대의 소망, 479-483.

겸손으로 씨를 뿌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반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려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이 거기서 나” 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4.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개혁자들이며, 완고하고 옹졸한 고집장자들이 아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우리 목회자들은 양을 훔쳐 가는 이리들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하며 목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들의 입장과 사명의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

새로운 개척 선교지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의 마음에 편견을 일으키거나 우리가 그들의 원수라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을 시험하실 것이며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빛을 즐겨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그분 앞에서 그들의 입장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야 하며 그것을 증가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복음 사역자, 92, 1892.

주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긴 공격의 연설을 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한 백성으로서 등한히 해 왔고, 결정적으로 불충성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은 소수의 중심부에 국한되었고,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마침내 복음의 감화에 굳어져 버리기까지 되었다. 진리를 너무 많이 듣고서도 그것을 거절한 자들에게 감명을 주기란 어렵다. …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를 대적이다. 만일 회개한다면 현대 진리가 인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올바르게 나타낼 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우리가 열렬하게 노력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의 사업은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는가. -교회증언 9권, 236.

아버지의 일을 함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요 10:37).

기독교를 공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요구에 대한 참되고, 겸손하게 자원하는 순종은 그분의 입양된 자녀들, 은혜의 수혜자, 위대한 구원의 참여자임을 나타낸다.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될 터인데,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말뿐이며, 행함과 진리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길, 그들의 일은 그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며 어두움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기심과 불의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모른다. 그들은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행하게 하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리뷰 앤 헤럴드, 1885.5.5.

형제자매들이여, 그대들이 받아들이는 증가된 빛은 그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더욱 큰 책임을 지운다. 그대들의 그리스도인 성장은 그대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시련들에 직면하기 위하여 더 잘 준비할수록 새로운 책임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대들은 새로운 시련들에 더 잘 준비하고 새로운 책임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대들은 이 사실의 진가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그대들의 의무를 깨닫고 있는가? 그대들의 생애 가운데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대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숙고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마지막 인상들이 축복이나 저주가 되어 그대들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사상이 생애에 엄숙한 경외심을 주며 주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만일 모두가 나에게 제시된 그대로 이 주제를 깨달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행하는 것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한편 크게 헌신함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철칙으로 삼도록 매우 강요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들이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 준수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그들은 그들의 매일의 생애에 진리의 원칙들을 결코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는다. …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주께서는 고귀하신 피로써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감사의 빛을 그분께 지고 있으나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과 무아적으로 매일 보답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5.1.20.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눅 9:54-56).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열렬히 일한다는 핑계 아래, 악한 천사들과 동맹한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을 저들의 종교적 이념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자비심을 나타내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하신다. 예수께서는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우리의 사업을 옹계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시대의 소망, 487.

우리는 그들을 대접하는 태도로 형제자매들의 품성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을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을 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를 섬기는 그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입장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호감이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영혼들에 모아서 우리의 생애에 그 영들을 들여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는 동일한 혐오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돌이키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품성의 결점은 흔히 결점들을 정복하도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때때로 닫게 한다. 주께서는 우리가 존귀를 돌려야 할 손님으로서 주님께 변덕스럽고 불쾌하며 경멸하고 불순종하며 불경하고 부주의하는 우리에게서 그분의 심령을 닫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의로 예수님께 드리기를 거절하는 그 존경과 그 경외와 그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을 티끌 가운데 버리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어지게 하라. 우리가 잘못된 자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갖는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7.4.5.

율법의 준수자가 아니면 범법자임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36, 37).

율법사는 자기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령의 살피는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다. 율법사는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주장한 율법의 의를 실행하지 않았다. 율법사는 동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다. 회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율법사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죄를 뉘우치는 일을 슬그머니 회피하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희망하였다. 구주의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율법사 자신이 자기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요 니이까”란 질문을 던졌다. -시대의 소망, 498.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의 동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 무관심을 나타내는 교회 안의 부류를 대표한다. 이 계층은 교회 안에서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범한 자들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조력자, 선한 일에 있어서 그분의 모본을 모방하는 이들을 대표한다. ...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의무에 대해서 전혀 체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생활을 살며 다른 편으로 지나가 버렸다.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경우에 그들에게 흑암이 초래될 것이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오직 유일의 올바른 모본 되신 분의 생애와 가르침에 저들의 생애를 비교하고, 저들의 동기를 충성스럽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불행한 자, 맹인, 발을 저는 자, 병자, 과부, 고아에 대하여 자비와 자선을 베풀고, 사려 깊게 고려할 때, 그 모든 행동을 당신께 행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러한 행동은 하늘 기록에 보존되고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불행한 자에 대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관심을 나타내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 어떠한 이익이라도 챙기고, 스스로의 이기적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이에 대해서 책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공정스러운 행위와 우리 중의 환난을 당한 자들을 부주의한 무관심으로 대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분명히 갚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최종적으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512, 513.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르는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 21).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다. 도처에서 토색과 편협과 잔인한 압제 등의 악폐들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 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모본 되신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리고 외적인 조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입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 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

그리스도 당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 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시대의 소망, 509, 510.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과시를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內的役事), 곧 생명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함에 도달한 인간의 품성 속에 보여진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훌륭한 선(善)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심령이 하늘나라의 원칙에 잡혀 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생애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그들의 확고한 성실성은 빛을 비추는 수단이 될 것이다. -치료봉사, 36, 37.

2020년 겨울 장막 집회

주제 :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 (골 1:27)

일시 : 2020년 2월 4일(화) ~ 2월 9일(일)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소리 외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의의 기별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 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